

# 내일의 나를 만나다

2024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체험수기집





# 내일의 나를 만나다

2024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체험수기집

# CONTENTS

## Part. 1

### 대전 일자리지원 사업 소개

|                              |    |
|------------------------------|----|
| 대전형 코업(co-op)<br>청년 뉴리더 양성사업 | 08 |
| 청년인턴 지원사업                    | 09 |
| 대전 일자리 카페「꿈터」                | 10 |
| AI 모의면접 시스템                  | 11 |

## Part. 2

### 2024년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 체험수기

|                                                            |    |
|------------------------------------------------------------|----|
| 나만 몰랐던 자신감 발굴 대작전<br>최우수상 - 충남대학교 이규리                      | 14 |
| 우물 밖, 세상을 향한 도약<br>우수상 - 충남대학교 김민정                         | 20 |
| 성장의 발판,<br>코업(co-op)에서 찾은 나의 길<br>우수상 - 한남대학교 송채빈          | 26 |
| 위기에서 기회로,<br>코업과 함께 성장한 나의 이야기<br>입선 - 한남대학교 김가영           | 32 |
| 현장에서 길을 찾다<br>입선 - 국립한밭대학교 박서연                             | 38 |
| 영업관리 속 문이 되어준 문장:<br>주문빛, 소통에서 비롯되는 모든 것<br>입선 - 한남대학교 배정현 | 44 |
| 성장통 [成長痛]<br>입선 - 배재대학교 백윤아                                | 50 |
| 민들레 흙씨, 꽃피울 준비를 마치다.<br>입선 - 한남대학교 복권철                     | 54 |





## Part. 3

### 2024년 청년인턴 지원사업 체험수기

|                                                  |    |                                                             |     |
|--------------------------------------------------|----|-------------------------------------------------------------|-----|
| 소심한 성격을 벗어나<br>빛나는 도전을 시작하다<br>입선 - 국립한밭대학교 서진아  | 60 | 인턴십을 통한<br>나의 실무 디자이너로서의 첫 여정<br>최우수상 - DMX / 류지원           | 88  |
| 진짜 무대는 지금부터!<br>경험은 콘텐츠가 된다<br>입선 - 우송대학교 양민우    | 64 | 캠핑용품 마케팅 인턴십을 통해<br>성장한 3개월<br>우수상 - (주)캡스톤 / 김수연           | 94  |
| co-op과 함께 성장한 나,<br>새로운 도전을 향해<br>입선 - 충남대학교 주유정 | 70 | 실패를 딛고 이룬 도약:<br>청년인턴의 성공 스토리<br>우수상 - 플래닛투어 / 문서현          | 100 |
| 꺼이지 않는 마음으로<br>내일을 향한 걸음<br>입선 - 배재대학교 한다인       | 74 | 엄마에서 사회인으로: 청년인턴<br>사업을 통한 제2의 삶 시작<br>입선 - (주)원탑스튜디오 / 권혜진 | 104 |
| 성장을 향한 도전,<br>품질관리 전문가로의 여정<br>입선 - 충남대학교 한주형    | 80 | 새로운 시작이 되어준<br>청년인턴 지원사업: 마중물<br>입선 - 유앤아이기술 / 김성환          | 108 |
|                                                  |    | 청년 인턴사업 드론개발 후기<br>입선 - 플러스인 / 김창현                          | 112 |
|                                                  |    | 자신감과 용기를 끌어 올려 준<br>소중한 경험<br>입선 - 조은꿈 / 오서진                | 116 |
|                                                  |    |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로<br>나갈 수 있게 해준 '청년인턴'<br>입선 - 대승바이오팜 / 이우철      | 120 |



# 내일의 나를 만나다



2024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체험수기집

최근 취업 시장에서 직무 관련 경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청년들이 가장 큰 고민으로 삼고 있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나에게 적합한 직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 현장에서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러한 취업 고민과 실무 경험의 필요성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해 대전광역시는 다양한 청년일자리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변화와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자 체험수기를 공모하였고, 그 결과 다양한 에피소드가 담긴 작품 중 21편을 엄선하여 수기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각 작품에는 청년들이 겪는 미래에 대한 고민, 도전, 그리고 성장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수기집이 비슷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에게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전광역시는

취업 고민과 실무 경험의 필요성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청년일자리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1

## P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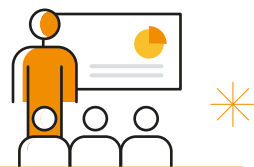


|                           |    |
|---------------------------|----|
|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 | 08 |
| 청년인턴 지원사업                 | 09 |
| 대전 일자리 카페「꿈터」             | 10 |
| AI 모의면접 시스템               | 11 |

# 대전 일자리지원 사업 소개



#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



## 사업규모

5개 대학, 학생 140명, 기업 70여개사 내외

## 참여대상

**학생:** 운영대학 대학생으로 재학생, 휴학생, 졸업유예자 등(만 39세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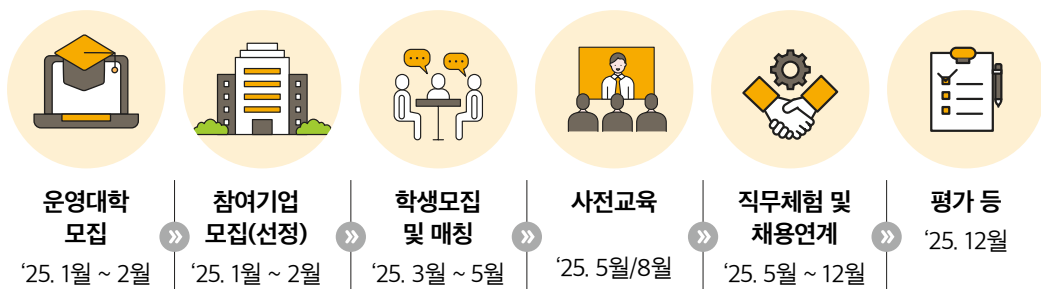
**기업:** 업력 3년 이상, 지역소재 중소기업, 대덕특구 연구소기업, 벤처기업 등

## 지원내용

3 ~ 4개월 직무체험, 월 2,096,270원 내 지급(1일 8시간 기준)

- 대학: 최대 20백만원 운영비 (기업) 멘토수당, 채용인센티브

## 추진일정



## 신청방법

대전일자리정보망 <http://www.jobdaejeon.or.kr>

\* 자세한 사항은 공고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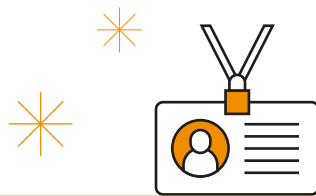
## 문의사항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일자리지원센터

☎ 042-719-8324



# 청년인턴 지원사업



**접수기간** 2025. 1. ~ 12. (상시접수)

**지원대상** 지역내 기업 및 대전 거주 만 18세 ~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80명)

| 구 분  |    | 제1유형(취업 확정형 인턴제)                                                                                                                         | 제2유형(일경험형 인턴제)                                         |
|------|----|------------------------------------------------------------------------------------------------------------------------------------------|--------------------------------------------------------|
| 지원대상 | 기업 | 나노·반도체, 바이오, ICT 분야<br>청결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br>대덕특구 연구소 기업 등<br>(제1유형 참여기업 제외) |
|      | 청년 | 대전 정착형 청년 일자리<br>종합 프로젝트 교육훈련 이수자                                                                                                        | 일반 미취업 청년                                              |
| 주요내용 |    | 현장훈련 이수 후 정규직 채용 전제로<br>직무 적응 등을 위한 인턴 근무 지원                                                                                             | 지역 중소기업 인턴근무를 통한<br>일 경험 및 정규직 전환 기회 제공                |
| 지원내용 |    | <b>청년:</b> 3개월 간 '25년 최저월급(월 2,096,270원) 보장 / 교통비 5만원 별도<br>* 실제 급여는 기업과 협의 후, 결정<br><b>기업:</b> 3개월 간 인건비 지원(1인당 월 2,000,000원/ 기업부담금 별도) |                                                        |

**신청방법** 대전일자리정보망 <http://www.jobdaejeon.or.kr>

\* 자세한 사항은 공고 확인

**문의사항**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일자리지원센터

☎ 042-719-8332, 8345



# 대전 일자리 카페 「꿈터」



청년구직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취업 컨설팅 공간을 마련하여 취·창업 정보를 공유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잡(JOB) 카페

**신청기간** 2025. 1. ~ 12. (상시접수)

**신청대상** 대전시 거주 청년 구직자(만 18세 ~ 만 39세)

**주요내용** 1:1 진로 취업 상담, 취업스터디, 진로 취업특강, 현장면접, 취업정보 제공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대전일자리정보망 <http://www.jobdaejeon.or.kr> '꿈터' 참고

**문의사항**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일자리지원센터

☎ 042-719-8333, 8365



# AI 모의면접 시스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모의면접 시스템을 통한 면접 대응력 향상

- 신청기간** 2025. 1. ~ 12. (상시접수)
- 신청대상** 대전시 거주 청년 구직자
- 지원내용** Chat GPT 활용 자기소개서, AI역량검사(역량분석 게임)  
면접 응답영상 AI자동평가, 모의 면접 환경 제공
- 공간위치** 대전일자리지원센터 1층 AI 면접실(중구 선화동)
- 이용시간** 평일 10시 ~ 18시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사전예약 필수
- 신청방법** 대전일자리정보망 <http://www.jobdaejeon.or.kr>  
'AI 모의면접' 참고
- 문의사항**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일자리지원센터  
☎ 042-719-8333, 8365



# 2

## PART



|             |                                                |    |
|-------------|------------------------------------------------|----|
| <b>최우수상</b> | 나만 몰랐던 자신감 발굴 대작전 - 이규리                        | 14 |
| <b>우수상</b>  | 우물 밖, 세상을 향한 도약 - 김민정                          | 20 |
|             | 성장의 발판, 코업(co-op)에서 찾은 나의 길 - 송채빈              | 26 |
| <b>입선</b>   | 위기에서 기회로, 코업과 함께 성장한 나의 이야기 - 김가영              | 32 |
|             | 현장에서 길을 찾다 - 박서연                               | 38 |
|             | 영업관리 속 문이 되어준 문장:<br>주문빛, 소통에서 비롯되는 모든 것 - 배정현 | 44 |
|             | 성장통 [成長痛] - 백윤아                                | 50 |
|             | 민들레 흙씨, 꽃피울 준비를 마치다 - 복권철                      | 54 |
|             | 소심한 성격을 벗어나 빛나는 도전을 시작하다 - 서진아                 | 60 |
|             | 진짜 무대는 지금부터! 경험은 콘텐츠가 된다 - 양민우                 | 64 |
|             | co-op과 함께 성장한 나, 새로운 도전을 향해 - 주유정              | 70 |
|             |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내일을 향한 걸음 - 한다인                    | 74 |
|             | 성장을 향한 도전, 품질관리 전문가로의 여정 - 한주형                 | 80 |

2024년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  
체험수기



# 나만 몰랐던 자신감 발굴 대작전



## 최우수상

이름 이규리

대학명 충남대학교

실습기업 노바락토

참여기간 2024년 4월 ~ 7월



## 01.

사업참여  
이전의 나

코업 사업 참여 전, 3년 동안 달려온 나를 위한 휴식기간이 필요해서 휴학을 신청하였다. 그 전에도 휴학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방학 동안 생명공학연구원 인턴으로 있으면서 심적으로 많이 지쳤고 내가 대학원 진학과 연구 분야에 적성이 맞지 않은 것 같아 혼란스러웠다. 연구원 인턴을 준비하면서 같은 과 선배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 이 분은 이 연구원에서 일하면서 본인의 진로 방향성을 깨달았고 원하는 바가 확정되었다고 말씀하셨다. 나도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인턴에 참여하였으나 돌아온 건 더 심란해진 마음과 백지가 된 머릿속이었다. 이 상태에서 학기를 맞이하기에 너무 과부하 된 것 같아 휴학을 결심했다.

3월 한 달 동안 쉬면서 집에만 틀어박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방학 중에 아무것도 안한 적이 없었다. 장기여행이라든지 대외 프로젝트, 학부 연구생, 백마 인턴 등 꾸준히 활동에 참여해왔다. 방학도 아닌 학기 중에 아무것도 안하다보니 휴학했다는 핑계가 있어도 4학년이라 그런지 매우 조급했다. 정말 꾸준히 대외경험을 쌓아왔는데 아직까지도 진로결정을 못한 내가 과연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원하는 방향을 찾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다. 이 기간을 나의 진로 탐색 기간으로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회사와 분야, 직업 등을 알아보았지만 어떠한 흥미도 느끼지 못했고 더욱 막막해졌다.

5월부터 시작하는 공공기관 인턴십에 참여해 돈이나 벌자하는 생각으로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했고 마침 날아온 코업 사업 홍보 문자에 지원서를 보내 그렇게 참여하게 되었다.



## 02.

대전형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을 만나고

면접을 볼 때에도 면접관계서 전공분야가 아닌데 잘 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받았다. 늘 그렇듯 말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첫 출근 때 회사개요와 진행하는 실험에 대해 소개 받고 '잘 할 수 있다'는 나의 다짐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으로 바뀌었다. 다루는 내용이 내 전공분야와 하나도 연관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특허와 논문을 정리하고 보고 하는 나의 모습은 뼈격거렸고 움츠려들어 있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피드백 해주셨고 제품관련 피피티를 작성하면서부터 피드백을 받아들이며 점차 발전하기 시작했다. 건강기능 식품 관련 자료를 서치 하는 요령도 생기고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발표 자료의 배열이나 배치 방법도 배우면서 회사 업무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두 번째 고난은 실험이었다. 주로 진행하는 기능성과 항산화능 실험의 원리와 방법을 설명 받았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표준품 작성과 소거능 원리, 분주해야하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막상 실험을 하려고 하니 남을 따라하는 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했다. 오늘 안 되니 내일도 하고 이번 주에 안 되니 다음 주까지 끌고 가면서 마침내 원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두 가지의 경험을 통해 나는 끈기와 책임감을 제대로 배웠다. 이 실험은 매주 진행되었고 나는 점점 더 정확도를 올릴 수 있었다. 이것에 더해 이전 실험에 필요한 용액을 제조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총 4가지를 측정하는 실험에서 1개의 항산화능 실험에 필요한 용액 조제를 자꾸 실패하였다. 흡광도 값이 올라가지 않았고 오히려 떨어졌으며 선임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만드는 방법을 옆에서 유심히 보고, 반대로 내가 제조하는 모습을 확인받아도 나만 되지 않았다. 하루에 실험용액을 만들지 못하면 아예 진행을 할 수가 없기에 제조를 5번 시도하다 못해 포기하고 부탁드린 적도 있어 이것을 반드시 해내고 싶었다.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한 부분을 똑같이 따라했고 산소를 만나서 반응해야 하는 원리까지 깨닫고 나서야 처음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나는 이제 완벽하게 스스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실험을 나에게 맡겨주신 만큼 해내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임하기도 하였지만 나를 전폭적으로 믿어주시고 다독여주시고 요청사항을 긍정적으로 응해주시는 다른 분들이 없었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을 일이다. 모든 실험을 스스로 척척해낼 수 있게 된 날 이후, 다음 주 월요일 주간회의 시간에 전 주 업무 시트를 공유하면서 나의 실험 진행상황을 알렸다. 그러니 계속 옆에서 도와주시고 봐주신 매니저 분께서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젠 연구로 가야해" 이 말이 나에게 혹 다가왔고 정말 큰 자존감과 자신감을 얻게 된

순간이었다. 이 날부터 나는 기능성 및 항산화능 실험 담당자가 되었고 일명 “선생님”이 되었다. 스탠더드 커브의 추세선 값이 한번에 0.99가 나오게 실험을 마치고 데이터의 정확도, 편차 등을 일일이 확인하여 실수가 없게 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서 장난으로 하시는 말씀이시다. 듣는 나로선 부담스러우면서도 자부심이 안 생길 수가 없다.

내가 진행했던 기능성과 항산화능 실험 결과가 9월 학회 포스터에 실리기도 해서 나도 참여자로 이름이 넣어졌다. ‘만약 내가 스탠더드 그래프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것에 포기하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니면 샘플은 측정 못하고 그래프만 측정하는 수준에서만 머물렀다면?’ ‘실험 준비부터 데이터 정리까지 적극적으로 스스로 해내려고 하지 않고 남이 만들어 놓은 것에만 의존하려고 했다면?’ 절대로 나오지 않았을 성과다. 스스로 가치를 찾아 실행한 결과임이 포스터를 작성하면서 느껴졌고 나의 사명감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체감할 수 있는 경험이었다. 이 포스터에 실릴 실험을 진행하면서 집에 가라는 말을 마다하고 늦게 퇴근 한 적도 있으며 이것은 백프로 자의적인 나의 결정이었다. 진심을 가지고 업무를 대하니 회사도 나를 진심으로 대하고 지지해주어 나도 몰랐던 나의 역량을 200% 끌어낼 수 있었다. 출근 첫 주에는 나도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지만 점점 이 업무를 나만의 것으로 만들고 나를 위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임하면서 포스터의 경우처럼 회사와 내가 동시에 성장할 수 있었다.

연구소장님께서도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본인은 나를 처음에 딱 보았을 때 뭔가 조용하고 정해진 사무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하셨다. 하지만 실험을 맡기고 이를 행하는 과정에서 나를 달리 보셨다.



이 실험을 나에게 맡겨주신 만큼 해내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임하기도 하였지만  
나를 전폭적으로 믿어주시고 다독여주시고  
요청사항을 긍정적으로 응해주시는  
다른 분들이 없었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을 일이다.

## 03.

## 현재의 나, 그리고 앞으로의 나

나도 모르는 나의 세심함과 습관들, 기구를 다루는 테크닉, 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과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연구 분야에 적성이 잘 맞아 보인다고 하셨다.

그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 계속 더 일해보지 않겠냐고 회사를 다니면서 대학원 파트로 입학해 식품공학 석사도 딸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셨다. 너무 좋은 제안이었고 딱히 바라던 진로가 없던 나에게 작은 회사라도 졸업 후에 바로 취업해 석사까지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동의했다. 아직은 재학생이니 졸업 후에 정식 계약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8월부터 12월까지의 다른 국가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회사와 조율하여 학교와 병행하여 나눌 수 있게 배려해주셨다. 이 기간은 회사와 정식계약을 고민할 수 있게 해준 유예 기간인 셈이다.

난 어떤 것이 맞을까 계속 고민했고 마음을 먹어도 금방 바뀌기 일쑤였다. 그러던 나는 11월 15일 결정을 내렸고 이번년도까지만 다니기로 말씀드렸다. 바로 식품공학과 파트 타임 대학원이 아닌 식물자원학과 풀타임 대학원으로 진학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바랐던 것 단순히 취업과 돈, 어디분야든 상관없는 그저 취업을 위한 석사졸업증이 아니라 내가 대학원에 진학해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바랐던 것임을 깨달았다. 다양한 논문을 찾아 접하고 실험에 사명감을 가지고 대하는 자세가 회사에게 신뢰를 주었고 이를 나에게 그대로 표현해주셔서 비로소 나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전공에 대한 미련이 커졌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고 앞서 말한 듯이 나는 어디든 상관없이 취업과 석사졸업증이 필요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예 나의 전공과 다른 분야로 간다고 하니 점점 미련이 생기고 전공대학원에 진학하지 않는다면 후회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2학년 때 학부연구생 신분으로 잠시 다녔던 쌀 육종학 실험실에 대학원생으로 진학하여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 그동안 쌀을 연구하는 분야로 가고 싶으면서도 대학원 가기를 꺼려했던 이유는 실험과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논문을 읽고 실험과정을 공유하는 랩미팅 시간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 덕에 나는 비로소 걱정을 떨치고 그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었던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12월까지만 회사를 다닐 예정이다. 이 결정 또한 정말 당연하게 수긍하시며 따뜻하게 응원해주셨고 잘할 수 있을 거라 다독여주셨다.

나는 더욱 심적으로 안정되고 용기를 얻었다. 늘 한정되어 있는 학교에서 벗어나 또래가 아닌 연장자들을 만나 매일 함께하며 내면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었다. 좋은 사람들이 있는 따뜻한 분위기에서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사회성도 길러주었고 이것은 나에게 큰 자산이 되었다. 연장자들을 대하고 회사라는 체계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코업 사업을 참여하지 않았다면 절대 할 수 없는 경험이다.

나의 사례가 취업에 연계된 경우도 아니고 전공과 다른 분야로,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지만 모든 일의 기반이 되는 나의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다. 이것으로 나는 말은 바에 늘 진심을 가지고 임할 것이며 이 경험과 자신감은 어디서든 든든한 밑바탕이 될 것이다.

새로운 길로 다가서게 된 나 자신 파이팅!  
나의 첫 회사, 노바락토 파이팅!



# 우물 밖, 세상을 향한 도약



## 우수상

이름 김민정

대학명 충남대학교

실습기업 충청지방행정발전연구원

참여기간 2024년 4월 ~ 7월



## 01.

사업참여  
이전의 나

행정학을 전공하며 지역을 위한 공적인 일에 대한 열망이 커졌다. 수도권으로 사람과 인프라 등이 몰리며 여러 지역은 소멸 위기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렇기에 지방이 지방으로서 자립하고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나고 자란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로서 성장하고, 생활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론적인 학습을 넘어서, 일선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을 해내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의 인턴 경험이 없었기에 그 현장을 알고자 하는 갈증이 가득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 정책이나 지역 발전 방안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지, 그 세세한 과정을 몸소 겪어보고 싶었다.

직무 경험을 원하던 중 교내 인재개발원을 통해 ‘대전형 코업 청년뉴리더 양성사업’을 알게 되었다. 지원할 수 있는 기관 중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을 발견하였고, 이 기업이 나의 갈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였다. 국가공인 종합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권역별 본부가 존재하기에, 충청권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지역의 학술연구와 원가계산 및 여론 조사 등의 업무를 통해 지역 발전 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배우고 사무 능력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사업을 통해 이론적 학습을 배경으로 실무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지역 성장의 가치를 파악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감을 높일 방안을 찾는 방법을 배우고자 하였다. 또, 이 열망을 깊이 간직하고 쌓은 직무 경험을 통해 지역 발전에 도모하는 인재로 계속해서 성장하고자 본 사업에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참여하게 되었다.

## 02.

대전형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을 만나고

본 사업의 일 경험 수련생으로서, 학교 밖 사회에서의 경험과 더불어 정책 및 학술 연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보조 역할에 대해 직접 배우고 습득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연구 용역으로는 관광 인구 유입을 위한 시설물 건립, 지역 내 산업 및 제도 관련 기본계획 수립, 아동 친화 예산서 편성, 맞춤형 인구 정책 설정 등이 있다. 그리고 지방 출자·출연기관, 도립시설 등의 경영 평가 및 종합성과평가도 진행하며, 업무 중 해당 지역 거주 시민이나 이용 주민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실습생으로서 사업 참여 초반에는 연구 보고서 오탈자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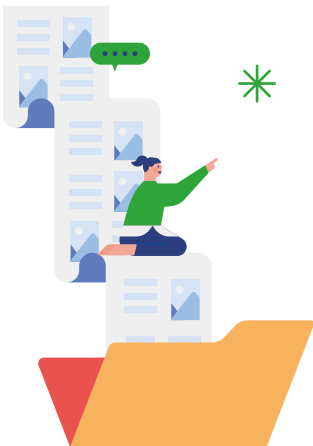
설문조사 결과 엑셀 코딩 작업 등 간단한 사무 작업을 수행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지역적 특색을 살리는 방안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는지, 설문조사의 문항은 어떻게 구성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사업 참여 중반부터 후반까지 다른 연구와 더불어 청양군 칠갑호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계획에 관한 연구를 주로 보조하며 사무직 및 연구직으로서의 역량을 늘릴 수 있었다. 관광시설물 중 스카이워크 유사 사례 조사를 위한 정보 공개 요청 과정 중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수수료가 청구되어 조사의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 담당 기관인 춘천시청 관광과에서는 청구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데 전자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하였다. 해당하는 기관에 정보를 청구하는 업무는 인턴 연구원의 일이었기에 담당 기관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한 후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담당 연구원님께 수수료 부과 이유를 말씀드리며 상황을 알렸고, 연구원에서 이전까지 행했던 정보 공개 청구 모두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 사실을 춘천시청 주무관님께 알렸고, 그 결과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객 수, 연간 운영비 등 필요한 정보를 첨부 파일이 아닌 텍스트 형식으로 답변을 받아 열람하는 방식을 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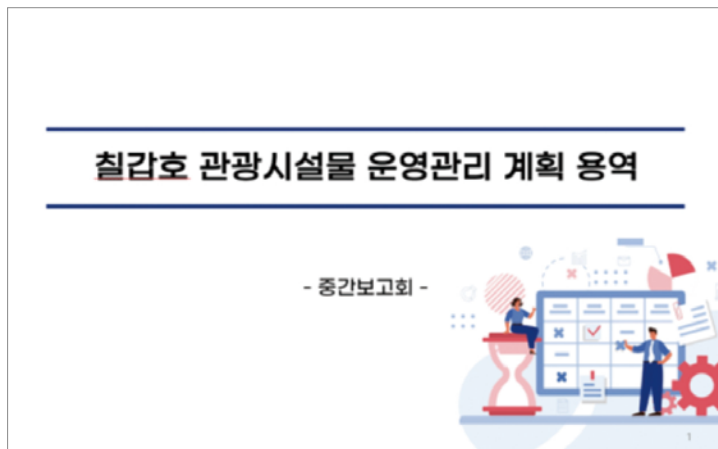
수수료는 몇백 원으로 큰 금액이 아니었기에 처음엔 자부담하여 정보를 얻으려 하였다. 하지만 담당 연구원님과 소통하여 상황을 해결함으로써,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지출 없이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 방식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인턴 연구원으로서 양측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한 후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깨달았다. 또한, 연구 대상 지역, 연구원 내부, 사례 조사를 위한 다른 지역 등 여러 기관에 걸쳐 정보를 수집하며 연구를 진행하는 체계를 몸소 파악하였다. 이외 다른 지역에도 정보 요청 후 열람한 정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면 직접 해당 부서 주무관과 유선상으로 소통하며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사한 사례 간 공통점을 찾아 분류하는 방법, 그것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선택할 사업 방향을 도출하는 과정에 대해 파악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연구의 진행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요 정보를 담아 중간 보고회 발표용 PPT를 제작하거나, 또 다른 연구의 대상 사업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올해 달라진 점을 비교하는 엑셀 표를 만드는 등 다양한 사무 업무를 통해 OA 능력을 향상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깨달은  
이 뜻깊은 경험들을  
토대로 전보다 더  
성장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업무 수행 능력 인지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일반 연구원들께서 인턴 연구원에게 업무를 할당할 때 해당 실습생이 진행 중인 업무가 있는지, 비슷한 일을 다른 연구를 통해 해본 적이 있는지, 원하는 기간 안에 끝낼 수 있는지 등을 물어보신 후 업무를 배정하셨다. 그 과정에 따라 몇 번 해보았던 설문조사 답변 엑셀 코딩북 제작을 진행하던 중, 담당 연구원께서 출장 출발 전 그 업무를 언제쯤 끝낼 수 있는지 물어보신 경험이 있다. 설문지 코딩 작업을 여러 번 해본 상태임에도, 이번 새로운 형식과 분량의 설문지에 대해서 일정 시간에 얼마나 작업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지 않은 채 단순히 답변 기록만을 하고 있어서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었다. 그래서 업무를 시작한 시간부터 몇 부를 완수했는지, 남은 분량은 얼마인지 정도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단위의 시간 안에 업무를 얼마만큼 끝낼 수 있는지 파악해야 일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여실히 깨달았다. 이것은 보조 역할에서뿐만 아니라 추후 직장에서 실제로 근무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다. 기관이나 기업은 여러 관계자들과 소통하여 업무 마감 기한을 설정하고 다양한 부분에서 협업하는 공동체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이해하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프로젝트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 03.

현재의 나,  
그리고  
앞으로의 나

우선, 본 사업을 통해 연구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공무원 혹은 공기업 취업처럼 행정학 전공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할 법한, 그리고 대부분이 선택할 법한 선택지만 고려하고 있었다. 공적인 업무에 임하는 길은 그뿐이라고 스스로 한계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직접 일 경험을 해봄으로써 세상은 훨씬 넓고 다양한 길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준)공무원만이 공공을, 지역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님을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한 프로젝트를 도맡아 진행하고 그 연구가 끝나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종료된 후엔 또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직의 업무 체계도 흥미롭게 다가왔다. 그래서 실습 기간 중 연구원님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하기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연구 용역을 수탁받는 과정은 무엇인지 여쭙보았었고, 사업 종료 후엔 학교에서 진행된 대전세종연구원 박사님의 취업 특강을 듣고 질문하며 연구직에 대한 정보를 쌓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지역에서 지역의 성장과 함께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해졌다. 사업 참여 이전에 지역 성장과 발전에 관한 이론적 학습을 넘어 일선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직접 경험하고자 하는 일념이 있었다. 실습을 통해 아동, 청년, 장애인 등 다양한 시민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하는 주민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관광 자원 확충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지역을 살리는 방안을 고안하는 업무가 더욱 가치 있게 느껴졌고, 그 일을 하며 지역의 힘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는 사람으로 발전하고 싶어졌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몸소 경험한 것이 매우 값진 기회였다. 비슷한 나이 또래의 집단과의 생활을 벗어나 여러 세대의 사람들을 마주하며, 사회에 나간다면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초, 중,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사람이 많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실습에 참여하며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더욱 넓어졌다. 개인의 취향이라는 사소한 영역부터 조직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판단 기준이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음에 신기함을 느꼈고, 동시에 나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근무 환경의 사소한 불편함이 있을 때 해결책이 있다면 그 방법을 개인적으로 구해서 해결하는 편인데, 다른 인턴 연구원은 그 불편함은 회사에서 고치거나 해결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때 '나는 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군말 없이 따르고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성격이구나'라고 스스로의 성향에 대해 인지하는 기회를 얻었다.

본 사업을 통해 깨달은 이 뜻깊은 경험들을 토대로 전보다 더 성장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휴학 상태에서 실습에 참여했기에, 복학 후 전공 수업을 들으며 한층 높은 이해도로 학습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또한 상승효과로 작용하여 직무에 대한 파악 능력이 더욱 향상되리라 여긴다. 또한, 직무 경험이 귀한 상황에 금과 같은 기회를 쟁취하였으니, 남은 휴학 기간은 취업에 필요한 정량적 스펙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하고자 한다. 실습하며 다져둔 OA 능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컴퓨터활용능력 1급을 준비하였고, 현재 합격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기업에서 가점으로 인정되는 어학 성적 준비나,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준비 등을 통해 나만의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고자 한다. 연구직에 관심이 생긴 후 대학원 진학도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하는 상태이다. 바로 일반대학원에 진학할지, 학사 학위만으로도 연구직 혹은 보조 연구원으로 근무가 가능한 길을 찾을지, 행정대학원과 같은 특수 대학원을 진학할지 등을 고심하며 미래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번 대전형 코업 청년뉴리더 양성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기관에서의 직무 경험을 더 많이 쌓아나가며 인생의 방향을 설계하면 된다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믿음이 생겼다. 세상에는 해볼 수 있는 일들이 많고, 그 여러 경험 속에서 얻는 깨달음은 어떻게든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 그것이 업무적으로든 생활적으로든 그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삶의 자양분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이번 실습을 통해 알게 되었기에 휴학 중 가장 잘한 선택이 바로 본 사업 참여를 신청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깨달음을 늘 기억하며 우물 밖 세상으로 더 많이 나아갈 수 있도록, 움츠러들고 있지 않고 뛰어오르며 더 대범한 사람으로 성장하고자 계속해서 도약할 것이다.



# 성장의 발판, 코업(co-op)에서 찾은 나의 길



## 우수상

이름 송채빈

대학명 한남대학교

실습기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참여기간 2024년 3월 ~ 6월



## 01.

사업참여  
이전의 나

## “무작정 시간을 흘려보내던 나에게 전환점이 필요했다.”

취업을 앞두고 방향을 잃고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어떤 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할지 몰라 헤매는 날이 이어졌고, 졸업을 강행하기엔 준비도 경험도 부족하다고 느꼈다. 결국 1년의 휴학을 선택하며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러던 중 2023년에 코업에 참여했던 친구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 능력을 키우고 적성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라는 확신을 얻었다. 특히, 회계 사무직 업무를 통해 조직 생활과 내가 얼마나 잘 맞는지 알아보고 싶었으며, 가능하다면 공기업에서 실무를 익히며 공공서비스에 이바지하는 경험을 하고 싶었다. 다행히 1지망이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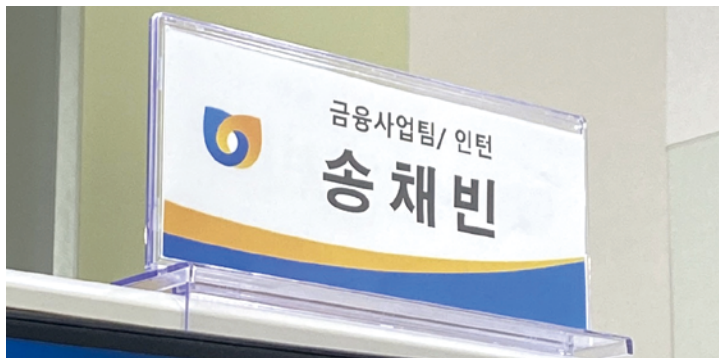
지원 과정을 통해 나의 목표와 방향성을 명확히 세울 수 있었다. 단순히 실무를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체 활동과 소통 경험으로 키운 적응력과 책임감을 실무 환경에서 발휘하며 성장하고 싶었다. 이를 통해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 방식을 배워 조직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러한 다짐을 바탕으로 코업에 성실히 임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 02.

대전형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을 만나고

## 금융사업팀에서의 첫걸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선 금융사업팀 인턴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 주 업무는 채무 관리와 사후 기록 관리로, 부실 징후가 있는 업체를 분류하고, 연체 대출 상환을 위한 안내와 데이터 정리를 담당했다. 이외에도 관할 부점 이관, 등기사항 정리, 소송 현황 조사 등 여러 기록 관리 작업을 진행하며 데이터 관리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새로운 환경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스스로 몇 가지 원칙을 세워 실천했다.





### 원칙 ① : 철저한 기록

첫 번째는 철저한 기록이었다. 한 번 배운 일을 다시 묻지 않도록, 모든 과정을 자세히 메모하며 업무를 익혔다. 금융 시스템의 복잡한 절차를 처음 배울 때부터 세세하게 기록해 두었고, 이후 유사한 업무를 다시 맡게 되었을 때 큰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어, 연체된 대출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록한 메모 덕분에 추가적인 질문 없이 업무를 완료할 수 있었다. 이러한 태도는 직원분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다.

### 원칙 ② : 효율적인 질문

두 번째는 효율적인 질문이었다. 궁금한 점은 바로 질문하되, 너무 자잘한 것까지 묻지 않도록 스스로 기준을 설정했다. 기준점이 된 질문은 '잘못 되었을 때 수정이 가능한가?'였다. 만약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 간단히 수정이 가능한지, 혹은 채무자나 외부 행사 담당자 등과 연결된 민감한 내용인지에 따라 질문 여부를 결정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상환 방법이 기존과 다른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며 기존 사례를 참조하고 사수에게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기준 덕분에 실수를 줄이고, 직원분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얻을 수 있었다.

### 원칙 ③ : 데이터 관리로 흐름을 책임지다.

세 번째 원칙은 정확한 데이터 관리로 업무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이었다. 내가 맡은 업무는 연체 대출 안내와 관련된 데이터 관리로, 문서를 정리하고 데이터를 수정하는 작업이 중심이었다. 단순 반복 작업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이러한 작업이 후속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결정짓는 기반임을 알게 되었다.

누락된 데이터를 보완하거나 기록의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은 단순한 반복 업무를 넘어 조직 전체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내가 맡은 업무가 팀의 목표 달성과 조직 운영에 기여한다는 책임감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 01 전통시장 재해 대비 안전 점검 행사





02 어린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참여

#### 원칙 ④ :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나서다.

마지막 원칙은 새로운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태도였다. 단순히 주어진 업무만을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도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찾아 나섰다. 운영지원팀에서 진행한 ‘어린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요청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이 행사는 관할 부서가 아니어서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일이 아니었지만, 평소 경험하지 못했던 업무 영역을 배울 기회라고 판단했다. 사무실 밖 현장에서의 업무가 회사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싶었고, 이를 통해 조직의 다양한 활동에 직접 기여할 수 있었다. 행사에 참여한 이후, 적극적인 태도가 직원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다. 그 결과, ‘2024 전통시장 재해 대비 시설 합동 안전 점검 행사’와 같은 주요 행사에도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 현장 경험은 단순히 새로운 업무를 배우는 것을 넘어, 회사의 전반적인 구조를 더 깊이 이해하고, 동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 조직문화 적응의 노력

사내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일과 관련된 노력 외에도 여러 방면에서 애썼다. 처음에는 회사라는 조직이 수직적이고 경직된 분위기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지만, 막상 경험해 보니 점심이나 회식 참여가 자유롭고, 연차 사용도 개인 상황에 맞게 조율할 수 있어 유연한 조직문화를 체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내 규칙이 자유로운 만큼, 다른 직원들과의 대화 기회가 많지 않아 인간적으로 어울리는 데 고민이 생겼다. 단순히 업무만 잘 수행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활용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



03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선물



04 사전 교육

했지만, 함께 식사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점차 직원들과의 관계가 편안해졌다. 나중에는 점심 메뉴를 고민하거나 회사 업무와 관련된 조언을 나눌 정도로 가까워졌다.

또한 실습생 신분으로서, 사소하지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직원분들이 자주 식사나 커피를 챙겨주셨기에, 실습비를 받은 후 작은 선물을 준비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러한 노력은 직원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조직문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코업(co-op)의 지원과 배움

코업의 체계적인 지원은 이러한 업무를 빠르게 익히고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첫 출근 날 진행된 4시간의 사전 교육은 사내 금융시스템 사용법과 회사의 주요 절차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기초 지식은 이후 복잡한 금융 데이터 관리나 채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다.

실습 중간에 열린 ‘소통의 장’은 또 하나의 큰 배움의 기회였다. 다른 기업에서 실습 중인 학생들과 서로의 환경과 업무 사례를 공유하며 각기 다른 회사의 특징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는 내 경험을 객관화하며 스스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처음에는 고민했던 다른 회사의 환경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참여 대학생들이 현장실습에서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었다. 중간에 담당자분이 직접 기업을 방문해 학생들과 상담을 진행하며,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했다. 이러한 체계는 실습생으로서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

이처럼 코업은 단순한 실무 경험을 넘어, 실무 지식과 자신감을 쌓고 타인과 소통하며 성장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러한 지원 덕분에 실습 동안 조직과 업무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며 전문성을 키울 수 있었다.



단순히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기회를 찾아  
조직과 함께 성장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었다.

## 03.

현재의 나,  
그리고  
앞으로의 나**“MZ 같다”라는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하다.**

‘MZ 같다.’라는 표현이 있다.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를 아우르는 말로, 처음에는 새로운 문화를 잘 받아들이는 자유로운 신세대를 뜻했지만, 요즘에는 조직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삶을 중시하는 사람을 뜻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코업을 시작하기 전, 나 역시 이러한 평가를 받을까 걱정이 많았다. 조직 생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던 나에게 회사라는 공간은 막연히 수직적이고 경직된 곳으로 느껴졌다. 자유로운 성향인 내가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일을 배우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지 스스로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은 오히려 나에게 더 좋은 배움의 자세를 만들어주었다. 걱정과 불안은 행동에 대한 동기가 되어 나를 되돌아보게 했고, 하나라도 더 배우고자 하는 적극성을 만들어 냈다. 그 결과, 단순히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기회를 찾아 조직과 함께 성장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었다.

**현장실습을 통해 얻은 배움과 변화**

실습이 준 배움과 변화는 그뿐이 아니었다. 요즘 기업들이 자유롭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직접 체감했으며, 팀과 업무를 가리지 않고 배우려는 자세로 임한 결과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한 여러 행사에 참여하며 전통 시장의 실제 운영 상황을 직접 보고 배웠다. 현장에서의 경험 덕분에 복귀 후 관련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훨씬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임할 수 있었다.

사무실에서 서류만 처리하는 것과 실무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 경험한 것은 큰 차이가 있었다. 현장 경험은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일 처리 방식과 조직 생활에서 조심해야 할 점을 배워 앞으로 더 큰 실수를 방지하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실습 이후 이어진 성장**

본부장님과 팀장님의 권유로, 실습 종료 후에도 약 2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실습 기간에 배운 내용을 실질적으로 적용해 볼 기회를 얻었다. 이 기간에 빠르게 실무 환경에 적응하며 스스로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나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무엇보다, 혼자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다양한 제도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코업을 통해 청년 취업 지원 제도의 다양성을 알게 되었고, 이를 활용해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 위기에서 기회로, 코업과 함께 성장한 나의 이야기

## 입선

이름 김가영

대학명 한남대학교

실습기업 맥앤웍

참여기간 2024년 9월 ~ 12월



## 01.

사업참여  
이전의 나

## 미숙함이 전부였던 나

코업을 시작하기 전, 저의 삶은 방향성을 잃은 나침반 같았습니다. 대학 생활은 기대와는 달리 순탄하지 않았고, 첫 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뒤 졸업마저 1년 미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던 나날들, 스스로는 괜찮다고 여겼지만, 사실 저는 제 미래를 회피하며 눈앞의 문제를 미뤄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7학점이 부족해 졸업이 또 다시 미뤄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계절학기나 학점 연계 방학 실습 등 가능한 방법들을 찾았지만, 이미 기회는 지나가 버린 뒤였습니다. 스스로를 탓하며 방황하던 그때, 우연히 만난 코업 담당자님을 통해 대전형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지원서를 작성했고, 전공과 부합하는 맥앤웍이라는 회사에 합격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02.

대전형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을 만나고

## 새로운 나의 시작

2024년 9월, 저는 맥앤웍 기획2팀에서 첫 인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과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 회사에서 4개월 동안 잘 버틸 수 있을까?", "업무에 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는 않을까?"라는 불안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새도 없이 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회사는 이미 'CSK2024'라는 대형 행사를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빴고, 저 또한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곧바로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CSK2024'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정원 주최의 행사로, 엄격한 보안 속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협업의 중요성은 제게 큰 충격과 함께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각 팀원들이 자신만의 역할을 정확히 수행하며 하나의 거대한 퍼즐을 완성해 나가는 모습은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그 현장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며 하나의 행사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나도 그 일부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을 때, 마음 한구석에서 새로운 목표가 피어났습니다. "언젠가 나도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해 보고 싶다." 이 마음은 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해 주었습니다.

### 책임감 속에서 성장하다

처음에는 간단한 서류 작성이나 이메일 작성조차 서툴렀습니다. 한 줄의 문장을 쓰고도 몇 번이고 고쳐야 했고, 양식을 맞추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허비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업무가 다양해졌고, 연사 조사, 기념품 선정, 현장 관리 등 행사 준비의 핵심적인 부분까지 맡게 되면서 책임감과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연사 조사는 단순히 이름과 소속을 확인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행사의 목적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고민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기념품 선정 역시 단가와 디자인, 실용성을 모두 고려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과정이 부담스러웠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가 팀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실제 행사에서 활용되는 모습을 보며 "나도 팀에 기여하고 있다"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맥앤웍에서는 인턴도 단순한 보조 역할을 넘어 팀원으로서 동등한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무겁게 느껴졌던 이 책임감이 시간이 지나며 저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등록 데스크에서 시작했던 제가 이제 회의실 관리와 콘솔 운영까지 맡게 된 것은 스스로의 변화를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협업의 중요성은

제게 큰 충격과 함께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각 팀원들이 자신만의 역할을 정확히 수행하며

하나의 거대한 퍼즐을 완성해 나가는 모습은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 PCO라는 직업의 매력

인턴 기간 동안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운영하며 PCO라는 직업의 진정한 매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4 ICT R&D 주간', '지역사회 영양 신체활동 비만예방 사업 설명회 및 성과대회', '유네스코 IHP 아시아태평양 지역 운영위원회 회의', '충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 등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이렇습니다.

"어떠한 성공적인 행사 뒤에는 반드시 PCO의 손길이 있다."

PCO는 단순히 행사를 운영하는 관리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행사 기획의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사항을 조율하며, 참가자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PCO가 행사 전체의 완성도를 결정짓는다는 점을 몸소 체험하며 이 일의 매력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CSK2024'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경험한 긴장감과 책임감은 제게 강렬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행사 준비는 항상 긴박하게 진행되었지만, 그 속에서 각 팀원들과의 협업은 놀라울 정도로 매끄러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도 그 일부로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할 나위 없는 성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 03.

현재의 나,  
그리고  
앞으로의 나

현재 저는 다가오는 2024 세계 토양의 날 기념행사에서 홍보담당자로써 챌린지 업무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행사와 그 의미를 자연스럽게 인지하도록 홍보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 기획한 3가지 챌린지는 모두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1. 너 사진 잘 찍었트? 챌린지

가을의 계절감을 활용해 사람들이 토양과 관련된 사진을 찍고 SNS에 공유하도록 유도했으며, 약 500명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2. 싹싹한 토양씨 챌린지

토양 관련 콘텐츠를 SNS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세계 토양의 날의 메시지를 널리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3. 라이브 시청 및 방문 인증 이벤트

오프라인 방문과 라이브 방송 시청 참여를 동시에 유도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심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챌린지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전과 배움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카드뉴스 제작을 위한 디자인 요청서 작성만으로도 반나절 이상 걸렸고, 구글폼을 처음 만들어보며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홍보 글 한 줄, 카드뉴스 한 장에 담긴 정성과 고민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홍보물들이 실제로 게시되고, 사람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내가 누군가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단순한 업무 이상의 의미를 주었고,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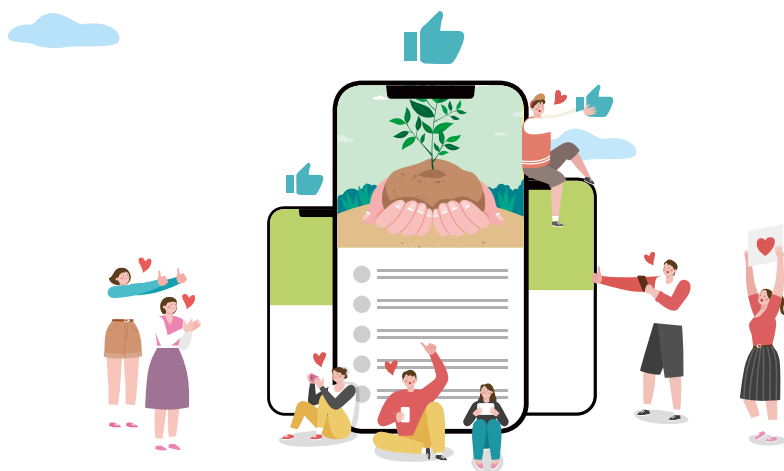
## 앞으로의 나

이번 코업 경험은 저에게 단순히 학점이나 실무 경험 이상의 가치를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스스로의 가능성과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불안과 미숙함으로 가득했던 저는 늘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업을 통해 "어떻게든 해내겠다"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기반으로 더 큰 목표를 향해 성장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목표는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을 취득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PCO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행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가는 창의적인 기획자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경험했던 시행착오와 배움을 통해 더 큰 프로젝트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대형 행사의 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획자가 되는 것이 저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이 경험은 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앞으로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해주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을 피하지 않고, 성장과 가능성을 믿으며 도전을 이어갈 것입니다.



# 현장에서 길을 찾다



## 입선

이름 박서연

대학명 국립한밭대학교

실습기업 계룡건설산업

참여기간 2024년 5월 ~ 7월



## 01.

사업참여  
이전의 나

대학교 3학년까지 저는 건설사 취업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성실히 학업에 전념하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좋은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적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더 큰 도전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교수님께 상담을 요청하며 “계룡건설에 가고 싶습니다”는 상담을 했지만 “계룡건설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다” 혹은 “여자가 건설사에서 할 일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실망감을 크게 느꼈지만 이를 동기부여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뤄낼 수 있을까?”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저를 증명하고자 결심했습니다.

3학년을 마친 후 1년간 휴학했습니다. 건축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서울에 위치한 종합건설회사에서 5개월간 인턴 생활을 했습니다.

현장은 제가 희망하던 건축 프로젝트와는 달랐지만 서울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라는 공사를 통해 색다른 현장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책이나 강의로만 접했던 지식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직접 경험하며 이론과 실무의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작업자들과 안전교육을 진행하며 소통 능력을 키웠고 사무실에서는 내역서 검토와 작업자 급여 정산 업무를 맡으며 실무 능력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에게 책임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건설업의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4학년으로 복학한 후, 저는 한 번 더 현장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자연스레 대전형 코업 청년뉴리더 양성사업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얻은 경험은 단순히 직무 체험을 넘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 02.

### 대전형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을 만나고

저는 대전형 코업 청년뉴리더 양성사업을 통해 계룡건설산업에서 직무체험을 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배정받은 현장은 대전 동구 천동 아파트 건설 현장이었으며, 약 1,300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공정률이 90%를 넘긴 준공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철근 조립이나 콘크리트 타설 같은 초기 공정 작업은 아니었지만 많은 것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장에서는 건축팀과 공무팀으로 나뉘어 업무를 배웠습니다. 건축 시공 직무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공사 기간 내 고객에게 요구 품질을 만족하는 목적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건축팀에서는 주로 세대 내부 하자 점검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하자의 수준을 정확히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 집처럼’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세심하게 검사하였습니다. 도배지의 찢어짐, 이염, 접착 불량과 같은 작은 하자들을 놓치지 않고 확인하고, 발견 즉시 기사님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신속하게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점검 덕분에 기사님이 놓친 하자들을 발견하고 세심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마루 이염, 걸레받이, 발코니 탄성코트 하자까지 담당하며 업무 스펙트럼을 넓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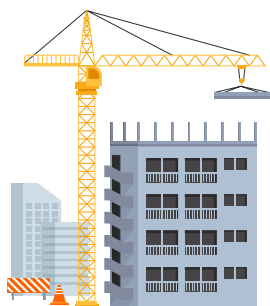
입주자 사전 점검 이후 접수된 하자를 분류하고 직접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면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배를 다시 하거나 바닥 평활도가 맞지 않아 재시공을 해야 하는 등의 문제도 겪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이전 공정에서 하자를 적시에 발견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만큼 품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무팀에서는 준공을 앞둔 현장의 특성상 여러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사용승인검사 등의 절차를 지원하며, 회의를 준비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또한 투입된 공사비를 엑셀로 정리하고, 공정별 사진대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실무에서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의 분위기를 세 달 동안 가까이에서 체감하며 건설업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건설사는 업무 강도가 높고 긴장감이 지속되는 직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철저한 책임감과 집중력이 필요한 환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환경에서도 스스로 적응하며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용어와 업무 흐름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매일 조금씩 기록하며 업무를 복습하고, 현장 선배들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부족한 점을 보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현장에서의 역할을 점차 이해하게 되었고 주어진 업무를 스스로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직무체험 전에는 막연히 "건설업에 도전하고 싶다"는 목표만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 적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취업 후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었습니다. 대전형 코업 청년뉴리더 양성사업은 단순한 직무체험을 넘어 저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 03.

## 현재의 나, 그리고 앞으로의 나

코업 청년뉴리더 양성사업을 통해 건설 현장의 실질적인 업무를 경험하며 한층 더 성장했습니다. 특히, 하자 점검부터 공무팀 지원까지 다양한 실무를 수행하며 제가 가진 역량과 이후 보완해야 할 점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전에는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었지만, 이제는 저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졸업을 앞두고 국내 주요 건설사 공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기와 높은 취업문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부끄럽지 않은 회사에 자랑스럽게 입사할 계획입니다. 공채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느끼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부족한 스펙을 보완할 것입니다. 공채 지원 과정에서 어학성적과 대외활동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영어 학습에 몰두하고 영어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졸업후 건설기술교육원에서 bim양성과정 교육을 수료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둘째, 실무와 이론 강화입니다. 현장에서 얻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 프로세스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복습하며,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입사 지원입니다. 지원서를 작성하며 제가 어떤 점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를 계속해서 고민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은 저에게 큰 경험과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성장하겠습니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더욱 발전하며 현장과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설 전문가로 자리잡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대전형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은  
단순한 직무체험을 넘어 저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 영업관리 속 문이 되어준 문장: 주문빛, 소통에서 비로되되는 모든 것

## 일선

이름 배정현

대학명 한남대학교

실습기업 서울프로폴리스

참여기간 2024년 9월 ~ 12월



## 01.

사업참여  
이전의 나

## 美的 가치를 더욱 높이며 소비자를 향해 문 여는 인재

저는 경영학 전공 속 마케팅과 소비자행동의 상관관계가 영업관리 직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흥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때, 소비자와의 소통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만이 만들고자 하는 제품을 개발할 시 수요보다 공급이 더욱 큰 결과를 초래하여 기업의 매출 성장문이 닫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실제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함으로써 화장품 시장의 급변하는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화장품 브랜드와 함께 피부에서 올라오는 유분으로 인해 메이크업에 어려움이 있는 '지성 피부' 소비자분들을 대표하는 상품개발단이 되어 활동했습니다. 매트 베이스 기반 파우더 개발 프로젝트 활동 속 상품개발단 측면에서 여러 차례 품평하며 제형, 색감, 발림성 등의 개선 사항을 전달드렸습니다. 그 결과, 제품 출시 후 높은 구매율 및 만족도를 보였으며 브랜드 신뢰도 증대 및 이미지 제고까지로 이어져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진정으로 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해 고객 중심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이 성공의 빛을 발하는 전략 중 하나임을 깨달았습니다.

더 나아가 앱 가입자 수 증대 목적으로 화장품·푸드가 주제품인 신규 커머스 채널의 'SNS 마케팅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20-30대를 타겟 층으로 선정한 후 인지도 설문조사 진행하며 니즈를 분석했습니다. 가입자 혜택, 프로모션 등의 내용을 담아 카드 뉴스, 릴스, 이벤트 등을 제작하여 업로드했습니다. 그 결과, 3개월 동안 앱 가입자 수를 주 평균 43.4% 이상 증진시켰으며 전국 직영점 중 가입자 수 1등을 기록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마케팅 등 경영이라는 열쇠로 고객의 니즈에 가장 가까이 마주하며 소통하고 기업의 일원으로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지원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접근하는 혁신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부서와 협력하며 넓은 관점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사람에서 더 나아가 환경 등 세상의 아름다움을 개척하고 변화를 이끌고자 하는 비전을 실현하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의사소통 및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하여 영업 및 마케팅 직무 속 빛을 발해 나갈 것입니다.

## 02.

### 대전형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을 만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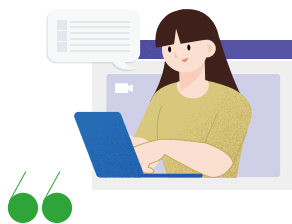
제조업 기업임과 동시에 자사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영업관리 직무는 제품 판 매와 생산을 연결하는 문의 역할이기에 경영전략을 이행할 수 있는 열쇠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영업 및 마케팅 직무는 주문 관리, CS 관리, 판매 현황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유관부서와 밀접하게 소통하며 이는 기업의 성과로 이어 진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업 및 마케팅 부서에서 수행한 저의 업무는 크게 온·오프라인 주문 관리, CS 관리, 완 제품 생산 지원, 온라인 판매 현황 파악, OEM/ODM 문의 관리로 총 5가지의 업무를 통 해 기업에서 빛을 받았습니다.

#### 1. 온·오프라인 주문 관리로 안전하게 택배 출고까지

저는 하루 업무의 시작을 온라인 신규 주문 건 확인으로 시작합니다. 입점되어 있는 다양한 쇼핑몰 사이트 속 판매자(Seller) 권한으로 접속하여 주문자, 수취인, 주소, 제품명 등 주문 상세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이때, 고객님께 타 상품이 배송되는 착오 없이 안전 하게 배송해드리기 위해 반드시 2-3번 확인하는 습관 만들기에 노력했습니다. 신규 주문 건에 대한 주문 정보를 확인하며 모든 업무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회사 ERP 시스템 상에 거래처, 제품명(코드), 수량, 금액 등을 기재하여 주문서를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 추후 CS 관리에 활용하고자 주문 일자, 주문자·수취인명, 주소, 연락처, 제품 명, 수량, 금액을 엑셀 파일에 정리하며 고객 클레임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는 방안을 알게 되었습니다.

택배로 출고되는 경우 계약택배사 사이트에 송장을 접수하여 출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회사 ERP 시스템 상 입력된 주문서를 바탕으로 당일 출고 되어야 하는 주문서 정보를 출고지시서에 최종적으로 작성하여 제품 포장 후 출고시켰습니다. 전공실 습에서 배운 ERP 시스템과 실제 기업에서 활용하는 ERP 시스템은 다른 점이 많았으며 더욱 간소화하여 효율적인 영업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 없어서는 안되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느꼈습니다.

결과적으로, 《판매 사이트 속 주문 정보 확인 - 회사 ERP 시스템상 주문서 입력 - 고객 관리정보작성 - 택배 송장 접수 - 출고지시서 작성 - 제품 포장 - 용달 혹은 택배 출고 - 판매 입력 - 출고지시서 기안서 작성》의 업무 프로세스를 수행했습니다. 고객님께 제품이 전달되기까지 위와 같은 많은 과정과 확인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으며 더블체크, 제품 완충재 포장으로 고객 만족도 및 신뢰를 구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정확한 출고만큼 출고된 주문서의 판매 입력을 통해 재고량을 조정하는 것 또한 앞으로의 수요 변동성을 예측하여 생산 부서와의 생산 일정을 조율할 수 있기에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영업 및 마케팅 직무인  
고객 클레임 관리,  
주문 관리 등의  
문을 열어 주문 확보라는  
빛을 보기까지  
소통 능력은 필수이다.

## 2. CS[Customer Satisfaction, 고객만족]관리로 주문빛 확보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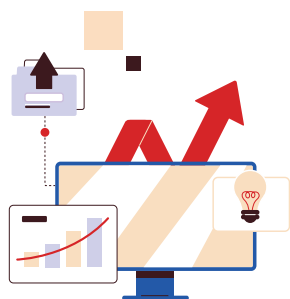
건강기능식품 특성상 식약처에서 과거에는 주성분의 함량 기준을 17mg으로 설정하였으나 현재는 연구 결과와 국제 기준에 따라 40mg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사 제품 또한 최고 함량 기준 변경에 맞추어 배합비를 바꾸어 리뉴얼했습니다. 기존과 비교하여 주성분의 함량이 2배 이상 상향 조정되어 기존보다 더욱 농축해야 하기에 원액의 경우 고유의 향과 맛이 강해짐과 더불어 시간이 지나 점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에 제품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고객님의 클레임 사항의 접수율이 높아졌습니다. 이때, 고객님의 문제 발생에 대한 원인을 자세히 설명드리며 타 응용 방법 시도에도 문제가 발생함을 확인하거나 제품 불량 현상 사진을 빠르게 확인한 후 교환 처리 도와드리도록 노력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고객의 건강과 관련이 높으며 CS 관리를 통해 무엇보다 품질 및 안전 측면에서 높은 신뢰도를 구축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결과, 빠른 문제해결,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 속 재구매율 증대를 실현했습니다.

대량 주문 건 급증이 재고 부족 현상으로 이어져 고객님의 빠른 시일 내에 납품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모든 주문 문의 및 신규 주문에 대한 취소를 요청드리 기에는 기업의 매출 및 고객 만족도 리스크가 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주문해 주신 제품의 예상 납품일을 사전 고지해 드림과 더불어 포장 서비스 제공, 즉시 출고가 가능한 제품 추천을 추천해 드리며 지속적으로 밝은 주문빛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이슈,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량을 예측한 후 생산팀, 연구팀 등의 부서와 소통하여 충분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 유지 및 안전재고 확보에 노력할 것입니다.

## 3. 주문량 급증에 맞서 완제품 생산 지원까지

대량 주문량 급증은 회사의 긍정적인 성장의 빛을 보여주는 문이지만 완제품 재고 부족으로 생산이 필요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고객님의 약속인 납품 일자를 지키기 위해 생산팀과 소통하며 능동적으로 직접 나서야 함을 느꼈습니다. 이때, 완제품 생산 지원을 하며 기업의 운영 효율성 및 생산 프로세스 병목현상 최소화에 기여했습니다.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부재료의 납품을 받아야 생산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협력업체의 납품 일자 연기로 인해 생산 시간이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조업에서 납기 준수란 고객 만족과 신뢰 구축으로 즉시 연결되는 문이라는 점을 일하며 깨달았기에 생산 업무를 지원하여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영업과 생산의 경계를 넘어 주문량 급증으로 인한 완제품 재고 부족이라는 문제를 해결 하며 조직의 가치를 더했습니다. 영업팀의 구성원으로서 주문량 급증 위기를 기회의 빛으로 전환한 점이 영업관리 직무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4. 온라인 판매 현황 파악으로 인기 상품 분석 및 마케팅 전략 수립까지

온라인 판매 현황 파악은 매출 비율, 인기 상품 분석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온라인 매출 성장 및 경쟁력을 강화시키기에 가장 빛을 발하는 자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판매 사이트 속 제품별 판매 수량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수집한 후 정리했습니다. 주 판매 상품이 건강기능식품이기에 온라인 판매 현황 파악 시 인기 상품 분석이 가능 하며 고객님들이 어떠한 효능의 관심도가 높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판매 경로를 통해 유입률이 높은지에 대해 파악하여 마케팅 전략을 계획했습니다.

자사 제품은 직접적으로 고객님의 피부에 맞닿으며 맛으로 느낄 수 있어 처음 접해보는 고객님의 경우 리뷰가 구매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유입률 및 구매율을 고려하여 한 판매 사이트 속 '리뷰 이벤트'라는 마케팅 전략을 고안했습니다. 정성스러운 구매 리뷰를 올려 주시는 분들의 한하여 추천을 통해 포인트 혹은 제품 할인권을 지급해 드리는 방식으로 브랜드 충성도 확보 및 사업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계획하여 공유했습니다. 더 나아가 '리뷰 이벤트'는 잠재 고객을 발굴과 동시에 고객님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더 나은 제품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어 '리뷰 이벤트'라는 마케팅 전략 수립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5. OEM/ODM 문의 관리로 신제품 개발 과정을 알기까지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er, 제조자 개발 생산] 문의 관리는 단순히 고객사의 문의를 접수하는 것을 넘어 신제품 개발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초반에는 고객사의 문의 내용을 담당자님께 전달드리는 역할에 집중하였지만, 시간이 지나 신제품 개발 과정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자극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문의드린 결과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신제품 개발 일정은 크게 품목제조신고, 제품생산, 부자재 개발 단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특성상 제품 단상자 패키지에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으며 트렌드 및 구매 욕구를 자극시킬 수 있는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제안을 드리는 노력을 했습니다. ODM 방식의 신제품 개발 과정 속 위와 같은 저의 노력이 있었기에 고객사의 니즈에 맞추어 신제품



패키지 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제가 고객사와 자사에서 중간 역할로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니즈를 최대한 제품에 녹여내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완제품 생산 후와 더불어 출시 후 빛나는 가치를 바라 보니 그 어려움의 순간들은 잊어졌습니다.

### 03.

#### 현재의 나, 그리고 앞으로의 나

온라인 판매 관리 업무 속 제가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기여하기 전에는 조금은 저조한 판매 성과가 이어지던 상태였습니다. 이때, 전월 대비 온라인 판매 수량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길이 저 또한 성장의 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도전하지 않고서는 주문빛을 바라볼 수 없기에 방안을 고안한 다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브랜드 가치를 인증받은 인증서 및 전 제품 설명서를 첨부하여 기관 홍보상품 및 이벤트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을 홍보했습니다. 이후, 유선상으로 제품 문의와 견적서 요청 건이 급증하며 온라인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8월 대비 9월 판매량은 약 425% 증가시켰으며, 9월 대비 10월 판매량은 약 100%” 증가시켰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과 향상은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소통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신제품 개발, 세분화 전략 수립 등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현재 연령대 구분 없이 건강기능식품 또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SNS 마케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SNS 광고마케터’ 자격증을 취득한 후 판매 상품에 적합한 SNS 채널을 활용하여 성과를 극대화 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위의 전문지식 취득과 더불어 실무 경험을 접목시켜 영업 관리 및 마케팅 직무에서 차별화 전략 실현, 산업 내 트렌드 분석을 통한 새로운 요소 적용 등 진정으로 빛을 발하는 인재로 거듭날 것입니다.

코업[Co-op] 청년뉴리더 양성사업을 지원하며 기업에서 제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업무가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 부서 와 함께 소통하며 주문 급증, 완제품 재고 부족, 고객 클레임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뜻깊은 경험이었으며 더 나아가 제 성장 가능성의 빛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업[Co-op] 청년뉴리더 양성사업은 청년분들께 자신만의 소통 능력이라는 관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자신을 믿으며 변화를 이끌어나가는 리더로 빛을 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성장통 [成長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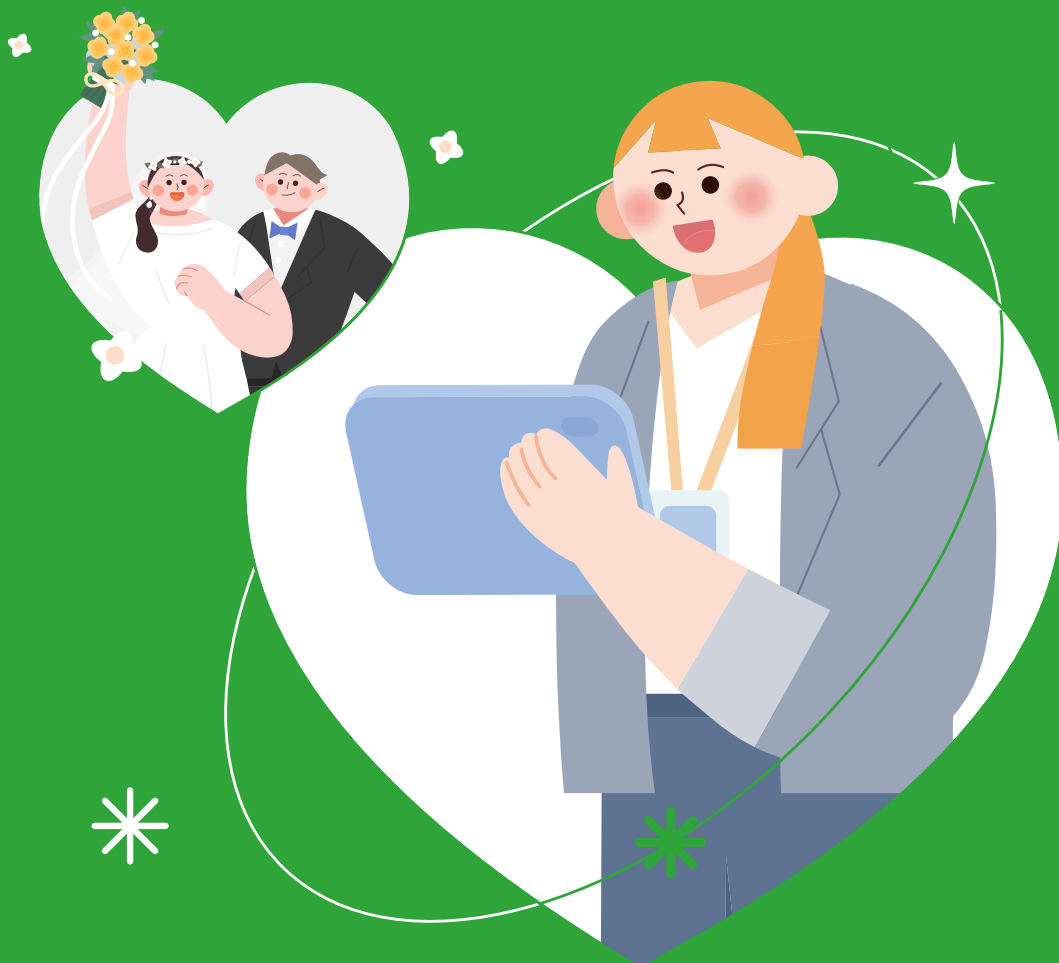
## 입선

이름 백윤아

대학명 배재대학교

실습기업 케이티에스테이트

참여기간 2024년 9월 ~ 12월



## 01.

사업참여  
이전의 나**불완전하기에 성장통까지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선택하는 재수도 학교에 입학하고 재학 중인 시절 흔히들 하는 그 흔한 휴학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나는 어느덧 졸업을 바라보고 있는 대학교 4학년 나이로는 23살이 되었다.

스물셋이라는 나이가 주는 불안감이 있다.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과 앞으로 나아갈 나의 진로 이 모든 것들이 불안감이라는 단어로 묶여 흔히 '성장통'이라 부른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대학 시절 내내 속으로 삼켰던 문장이다. 누군가 내게 꿈이 무엇이나 물으면 내겐 그 어떤 것보다도 어려운 질문이었다.

남들보다 유독 길고 남다른 사춘기를 겪었다고 생각한다. 이 시절 속에서 난 스스로를 갇아먹고 깎아내렸다.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 스스로가.

이후로 나는 하고 싶은 게 없어졌다.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대학에 진학 하고 시간이 흐르면 졸업을 하고 그 후 아무런 감흥 없이 직장을 잡아 일을 하지 않을까.라고 무던하게 생각을 할 뿐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성장통이었다.

경영학과를 가게 된 것도 취업이 잘 될 것 같다는 단순한 생각 때문이었다. 대학교 1학년까지는 이런 낱아빠진 생각에 잠겨 허송세월하였다.

억겁의 시간이 지나 문득 든 생각은 해답을 찾고 싶었다.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의 해답을 찾으려 나는 다시 한번 성장통을 겪었다.

해답의 첫 번째 발걸음은 대학교 홍보대사에 지원한 일이었다. 그 후 1년간 직접 고등학교나 박람회를 다니며 현재 재학 중인 대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 알리고 각종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학교를 홍보하는 업무를 맡았었다.

두 번째 발걸음은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 1년간 매니저로 근무하며 아르바이트생 교육과 매장에 관련된 사무 업무 등을 해냈었다. 집단이 주는 소속감과 직책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로 인해 책임감과 추진력을 얻었지만, 해답의 본질은 찾지 못하였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한 채로 겨울이 지나 이른 봄이 찾아왔다. 그리고 세 번째 발걸음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 02.

대전형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을 만나고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은 전부터 사업의 존재를 알고 있어 내게는 꽤 친근하게 다가왔다. 이점이 매우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신청하였다.

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나는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러한 느낌은 곧 확신이 되어 돌아왔다.

자기소개서를 쓰며 '나'라는 존재에 대해 한 글자씩 적고 그것들이 모여 문장이 되고 결국에는 한 페이지가 되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 내가 경험하고 활동했던 그 모든 일련의 시간들이 해답의 본질이었다.

불안감이라는 파도 속에서 겨우 숨을 쉬고 있다고 생각했던 나는 사실 그게 아니라 파도 속에서 유연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유연하는 법을 배운 깨달은 나는 해답의 본질이 담긴 이력서를 내고 다행히 원하던 기업체에 4개월 동안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나'라는 해답의 본질인즉, 내가 진정하고 싶은 일인 마케팅 실무를 경험하게 되었다.

4개월 동안 마케팅하게 될 주제는 '야외 웨딩'이었는데, 대전에는 이미 쟁쟁한 웨딩 업체들이 많아 그 사이에서 새로 론칭한 kt인재개발원 '야외 웨딩'을 홍보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지금까지의 경험들과 시장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결혼 적령기 및 결혼 예비 세대인 2030세대 여성들을 타깃으로 그들이 주로 쓰는 플랫폼인 '인스타그램' 스타일의 느낌으로 템플릿을 제작하고 해당 템플릿을 썸네일로 활용하여 웨딩 관련 정보들을 포스팅하고 kt인재개발원 야외 웨딩 관련 정보들을 업로드하였다.

이 과정 속에서 나는 마케터라는 직업이 지닌 매력에 매료되었고, 실제로 kt인재개발원 야외 웨딩을 계약한 신부님께서 블로그를 통해 많은 웨딩 정보를 얻게 되었다며 감사하다는 말을 전할 때면 뿌듯한 감정이 들었다. 또한 이전에는 야외 웨딩 포스팅 조회 수가 10단위였기 때문에 100단위로 조회수 목표를 세웠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해당 목표를 이루어냈다.

이후 야외 웨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제안서 PPT를 제작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단순한 대학생 과제가 아닌



회사 업무라는 중압감과 평소 생소했던 광고 업체를 조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다. 대전시민들을 타깃으로 홍보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획기적이고 효율적으로 광고를 진행해야 한다 생각하여 '영화관 광고', '은행동 스카이 로드 광고' 등 해당 장소에 관련된 광고 아이디어를 생각했고, 제작비와 게재 기간 등 상세히 적고 광고로 인한 기대효과까지 기재하여 PPT를 완성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유영하는 법을 깨달은 나를 믿기 때문에 완벽하게 완성해낼 수 있었다. 그렇게 나의 두 번째 성장통이 끝이 났다.

### 03.

### 현재의 나, 그리고 앞으로의 나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답을 드디어 말할 수 있게 된 지금의 나는, 당당히 말한다. 나는 마케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다시 말해, 마케터가 되고 싶다고 말이다. 마케터가 되기 위해 현재 나는 자격증 취득은 물론이고 어학 공부도 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어떤 회사에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직무는 마케팅이고 나의 직업은 마케터라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불완전한 '나'라는 존재에 불안감에 빠져 익사하고 있던 것이 아닌 유영하며 스스로를 성장시켜왔음을 나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다. 본질을 찾을 수 있게 소중한 기회를 준 '코업(co-op)'사업에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그 모든 성장통이 아름다웠다고. 병명 또한 사랑해 줄 것을 다짐하며,

첫 번째 성장통의 병명은 사춘기  
두 번째 성장통의 병명은 청춘이었다.



불완전함 속에서 겪은 성장통을 통해  
불안감에 익사하는 것이 아닌 유영하며  
스스로를 성장시켜왔음을 깨달았다.



# 민들레 홀씨, 꽃피울 준비를 마칩니다.



## 입선

이름 복권철

대학명 한남대학교

실습기업 KLES

참여기간 2024년 9월 ~ 12월



## 01.

사업참여  
이전의 나

나는 가끔 캠퍼스를 걷는 무수한 학생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저들도 나처럼 진로에 대한 걱정이 많을까?’라고 말이다. 나는 정해진 진로가 없는 게임중독자였다. 나의 20대를 돌아보면, 온통 후회뿐이었다. 나는 친구들과 매일 같이 피시방에 가서 밤새 게임을 했었다. 보통 저녁을 먹고 피시방에 가니까,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가 넘도록 게임에 빠져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당연히 이런 생활은 수면 부족을 일으켜서 다음 날 활동에 큰 지장을 주게 된다. 이러한 망가진 생활 패턴으로 인해 강의 시간에 집중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곧 낮은 학점을 받게 되는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나의 마음에도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망가진 생활 패턴을 바로잡고, 진로를 찾기 위한 실낱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취업 관련 활동들을 찾아보기 위해 주변 지인과 학교 선배, 대학 커뮤니티, 담당 교수님과 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러 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기 현장실습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되었다. 내가 알아본 사업단은 IPP일학습 사업단, 링크 사업단, 코업 사업단이었는데, 그중에 코업 사업단이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어서 ‘대전형 코업(co-op)청년뉴리더 양성사업’에 지원하게 되었다.

나에게 ‘대전형 코업(co-op)청년뉴리더 양성사업’은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이 활동은 대학 재학생들에게 연구소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 직무 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경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대학교와 학점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력개발의 기회를 얻는 동시에 활동 비용과 학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활동은 내가 그토록 원했던 진로활동을 진행함과 동시에 활동비와 학점까지 얻을 수 있는 일석삼조의 활동이었다. 또한 이 활동은 단순히 단발성에 끝나는 활동,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라 청년 취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나의 실무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첫 출근을 기다렸다.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실무 인재로 성장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주어진 임무와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인 자세로 임하여 실무를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기업의 일원으로 빠르게 적응할 생각이었다.

## 02.

대전형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을 만나고

하지만 ‘대전형 코업(co-op)청년뉴리더 양성사업’은 내 생각보다 적응하기 힘들었다. 나는 에너지 산업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발전설비 회사인 KLES에서 신재생 사업개발 부서의 인턴으로 배정 받았는데, 이곳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는 부서로, 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나는 이곳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맡았는데, 처음엔 내가 원했던 직무 방향이 아니라 실망하기도 했고, 동시에 ‘내가 이곳에서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또한 내가 가진 지식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진행해야만 했고 생소한 개념이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나의 주요 업무는 문서 정리, 엑셀 작업, 팩스, 자료조사, 영농형 태양광 관련 공부 등 기초적인 업무였다. 하지만 모든 공간이 낯설고, 자료들은 눈에 읽히지도 않았다. 또한 간단한 엑셀 작업도 끔찍대는 나 자신이 매우 초라하게 느껴졌다. 출근 첫 주는 그야말로 정말 지옥과도 같았다. 앞으로 4개월 동안 근무할 공간인데, 앞길이 막막했다. ‘생소한 분야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업무도 하지 못한다면 나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의 놀고 즐겼던 나날들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놀던 시간에 공부했더라면...’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었다.

나는 자신감을 갖기 위해 담당 멘토와의 상담을 요청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은 이렇다.

‘인턴은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열심히 하려는 자세와 항상 배우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해, 인턴한테 많은 역량을 바라지 않아’

답변을 듣고, 나는 머리가 멍해졌다. 담당 멘토의 말이 전부 맞는 말이다. 그동안의 걱정들은 전부 쓸데없는 생각들이었다.

우리 부서는 다수의 직원이 전문 인력으로, 전공 수준의 공부만 해왔던 나의 얕은 지식으로는 애당초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 또한 내가 당장 중요한 프로젝트에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그래서 맡은 업무가 아무리 기초적인 업무라고 할지언정 중요한 프로젝트의 바탕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나는 멘토 상담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최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회사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다. 업무를 수행할 때 혹은 대화할 때에도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항상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하였다.

‘기다린 자에게 복이 온다.’라는 말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격언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다린 결과, 나에게 성장의 기회가 찾아왔다. 나는 새로운 업무를 지시받았는데, 이 업무가 나의 전공과 연관된 업무였다.

새로운 업무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여러 지원 정책과 금융 상품들을 조사하고, 이를 보고서로 작성 및 발표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대학교에서 비슷한 과제를 수행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예전에 진행했던 과제 자료들을 참고하였고, 같이 과제를 수행했던 팀원들에게 자문하기도 했다. 이후에 보고서 작성과 발표의 경험이 적어서 업무 수행에 차질을 겪기도 했지만, 동료에게 조언을 듣고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는 등 끝없는 노력 끝에 마침내 첫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 기업의 주요 제품들에 대한 기술 발표 프로젝트를 하달받았다. 이는 기업의 주요 제품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프로젝트였는데, 7개의 주요 제품에 대해 매일 발표를 진행해야 했다. 스카이 폴딩 시스템, 비산 먼지 저감 시스템, 고 하중 구조물 인양 시스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 노내 비계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스마트 배관 관리 시스템, 배관 충격 완충 장치 등 7개의 제품 모두 살면서 처음 들어본 생소한 제품들이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제품들을 다른 직원들 앞에서 소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앞길이 막막했다. 왜냐하면 나는 발표 올림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당장 인터넷을 켜고 ‘발표 올림증 극복하는 법’을 검색해 보았다. ‘발표 연습을 많이 하세요,’ ‘발표 내용을 전부 이해해야 합니다,’ ‘청심한 드세요,’ ‘이런 거 찾아볼 시간에 빨리 해라’ 등 답변 내용들은 전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이에 주요 제품들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각각 제품들의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서 자문했다. ‘제품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품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나요?’, ‘제품의 문제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내가 실제로 제품 담당자들에게 했던 질문이다. 질문을 할 때마다 제품 담당자들은 친절하게 제품에 관해 설명해 주셨다. 나는 답변의 내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여 정리해 두었고,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이를

활용하였다. 마침내 발표 자료가 완성되었고, 나는 다시 제품 담당자를 찾아가서 발표 자료의 검토를 부탁드렸다.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를 도와주신 제품 담당자에게 감사함과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이제 마지막 발표만 남았다. 지금까지의 과정들은 모두 발표만을 위한 것들이었다. 나는 발표 올령증을 극복하기 위해 실제 발표 장소에서 발표 연습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영상 촬영을 진행하여 발표할 때 나의 자세와 발성, 또 시선 처리가 어떤지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떨리는 목소리와 마이크, 점점 빨라지는 말투, 안절부절못하는 왼손, 짝다리 등 나의 문제점은 한둘이 아니었다. 이에 하루에 수십 번씩 발표 연습을 진행하였고 차근차근 나의 문제점을 고쳐나갔다.

마침내 발표 당일이 되었고, 청심환을 먹으면서 긴장을 풀기 위해 노력했다. 매일 같이 발표 연습을 진행한 덕분인지 왠지 모를 자신감도 생겼다. 나의 발표 차례가 되었을 때는 마치 전문가라든가 된 듯이 제품을 소개하였다. 끝없는 노력 끝에 10분 동안 진행된 발표는 살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발표였다.

### 03.

#### 현재의 나, 그리고 앞으로의 나

‘대전형 코업(co-op)청년뉴리더 양성사업’은 나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먼저 나의 생활 패턴에 큰 영향을 주었다. 9시부터 18시까지 정해진 근무시간으로 인해 나의 생활 패턴이 계획적으로 진행되었고, 회사에서 많은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퇴근 후에 자연스럽게 피폐한 삶이 아닌 휴식을 취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갑자기 바뀐 생활 패턴에 적응하기도 힘들었고 생소한 업무에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회사 생활에 임한 결과, 힘들었던 일도 잘 풀리고 일에 대한 칭찬도 많이 들었다. 이를 통해 항상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다음으로, 나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기술 발표 프로젝트를 통해 발표 올령증을 극복하고 발표 스킬을 제고하여 나의 아이디어를 남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실무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었다. 실무는 여태까지 배웠던 대학교 전공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대학 4년 동안 팩스 보내는 법, 업무 보고서 작성하는 법, 복사기 사용 방법 등 실무와 관련된 수업을



민들레가 피는 과정이  
마치 인턴 활동을 거쳐서  
사회에 발을 들이고  
사회에서 성장하는  
나 자신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들을 익힐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명확한 진로를 가지게 되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여러 지원 정책과 금융 상품들을 조사하게 되면서, 전공을 살리는 진로를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이에 나의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추구하는 금융 전문가로 성장하여 금융 격차를 해소해 국가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 경제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로 성장할 것이다. 금융 격차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그들이 가진 수용 능력의 차이에서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융’이라는 다소 어려운 분야를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다.

나의 인턴 생활은 마치 민들레가 피는 과정과 같다. 민들레가 피는 과정을 설명하자면, 민들레의 씨앗인 민들레 흄씨가 바람을 타고 땅에 착지하여 결국엔 예쁜 민들레가 탄생하게 된다. 여기서 민들레 흄씨는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들인 나 자신을 뜻하고, 바람은 회사 내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뜻한다. 이때, 바람은 바람의 세기나 시기, 주변 환경에 따라 맞기 좋은 바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바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중의적인 의미는 마치 회사에서 힘들었던 일과 좋았던 일을 겪었던 나 자신과 매우 유사하다. 이런 과정을 지나 민들레 흄씨는 땅에 착지하게 되는데, 여기서 땅은 내가 진출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사회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땅에서 자란 예쁜 민들레는 내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나의 미래 모습을 상징한다.

민들레가 피는 과정처럼 나는 모든 환경이 낯설고 서투른 인턴 즉, 민들레 흄씨이지만 주변 직원들의 따뜻한 칭찬과 따듯한 충고를 통해 무궁무진한 사회에 발을 들일 수 있는 인재로 성장했다. 이제는 앞으로 나의 진로를 향해 꽃피울 일만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마지막까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소심한 성격을 벗어나 빛나는 도전을 시작하다



## 입선

이름 서진아

대학명 국립한밭대학교

실습기업 한국과학기술지주

참여기간 2024년 9월 ~ 12월



## 01.

사업참여  
이전의 나

저는 늘 무대 뒤에 머물며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거나 발표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떨리는 제 목소리와 낯선 환경에서의 불안감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소심한 성격으로 사회에 나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대학교 시절 내내 이 고민은 저를 따라다녔고, 자신감 부족으로 한 걸음씩 항상 뒤로 물러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순간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변화를 너무 두려워해서,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지금 빛나는 이 순간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지금의 나를 넘어서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렇게 선택한 첫 번째 도전이 바로 청년인턴이었습니다.

특히, 전공인 회계를 실무적으로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실무에서는 전공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현장에서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이 계속 제 마음속에 있었고,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 기회를 꼭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이론만으로는 회계라는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현장의 경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인턴을 통해 사회생활과 기업 업무의 전반적인 흐름을 배우고, 경영지원실에서 회계 직무를 체험하면서 전공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에 참여하기 전의 저는 두려움 속에서 가능성을 좁혀가고 있었지만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면서 한계를 극복하려 준비했습니다. 인턴을 통해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회계 실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기 위해 인턴 지원을 결심하였습니다. 결국 이 도전은 저에게 단순 직무 체험 이상의 의미가 되었고, 저는 이 기회를 통해 더 성장하고 나아가야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02.

대전형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을 만나고

## “전화를 두려워하던 내가 의사소통의 자신감을 얻기까지”

과거, 저는 단순히 배달 전화를 걸 때조차도 떨며 대본을 작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 너머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두려웠고, 전화기가 울릴 때면 마치 시험대에 오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제가 경영지원실에서 인턴 업무를 하게 되면서 제 자신이 180도 변화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전화를 받을 때는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했지만, 반복되는 업무와 많은 연습을 통해 전화가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상대방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정확하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때마다 느낀 작은 성취감은 제 안의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는 전화를 받거나 거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회계 지식도 정말 많이 배우고 익혔지만, 무엇보다 제가 느낀 가장 큰 변화는 내면의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을 넘어, 소심했던 제가 스스로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얻는 이 과정은 저에게 아주 소중한 경험입니다.

경영지원실에서 저는 ‘질문봇’으로 불릴 만큼, 업무 중 생기는 궁금증이나 어려움은 모두 적극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모르는 것을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작은 문제도 업무에 큰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혼자 고민하며 해결하려다 결국 질문하지 못한 채 업무를 끝마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방식이 잘못된 방법이었고, 결국 직원분들이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혼자 끙끙대는 것보다 질문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후로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모르는 것이 생기면 직원분께 자주 질문하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배움을 통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고, 이 과정은 저를 더욱더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도전은 저에게 단순 직무 체험 이상의 의미가 되었고,  
저는 이 기회를 통해 더 성장하고 나아가야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03.

현재의 나,  
그리고  
앞으로의 나

## “도전을 통해 얻은 확신과 실무를 통해 느낀 즐거움과 보람”

4년 동안 회계를 전공하면서 저는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전공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로 졸업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졸업하기 전에 학생의 신분으로 회계적 지식을 실제로 적용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 좋게 경영지원실에서 직무 체험을 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저는 이곳에서 회계 업무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경영지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저는 기업의 회계 실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더 존 프로그램’을 사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지원실이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그리고 회계의 실무적인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서 배웠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계정과목과 회계처리 이론이 실제 실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법인카드 영수증 내역을 기준으로 더 존 프로그램에 회계처리를 입력하고, 출장비를 정산하며, 전자세금계산서와 비용청구서를 기반으로 지출 품의를 작성하는 등의 여러 업무를 경험하며 회계가 단순한 숫자 관리가 아닌, 기업 운영의 핵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무 체험을 통해 회계를 다루는 일이 매우 즐겁고, 제 적성과 흥미에 잘 맞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턴이 경험한 업무는 경영지원실에서 이루어지는 회계 업무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겠지만, 업무에 흥미를 느끼고 사회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은 저에게 있어 아주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은 앞으로 제가 전공 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성을 키우는 데 큰 동기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도전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두려움보다는 가능성을 선택하며, 저의 소심했던 과거와 달라진 현재를 발판으로, 저는 전공 분야에서의 의미 있는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 진짜 무대는 지금부터! 경험은 콘텐츠가 된다.



## 입선

이름 양민우

대학명 우송대학교

실습기업 대전문화방송

참여기간 2024년 5월 ~ 7월



## 01.

사업참여  
이전의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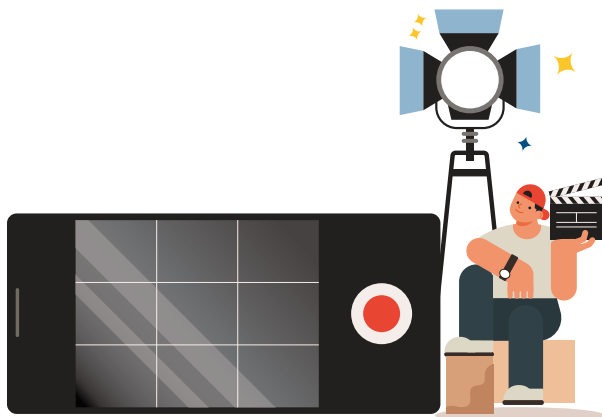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저는 우송대학교 미디어디자인·영상전공 재학중인 4학년 양민우라고 합니다. 제가 대전형 코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솔직히 말하자면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학생 시절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 사진 촬영하는 것을 좋아했고 영화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이를 만드는 것에 대해 재미를 느끼며 자연스럽게 창작이라는 영역에 흥미를 붙이게 되었고, 나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내 방식대로 표현하여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에 대해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진학 희망 학과를 찾던 중 디자인과 영상이라면 많은 이들에게 저만의 방식으로 즐거움을 주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라는 생각만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연한 흥미만론 점점 만족하는 실력을 이끌어 낼 수 없었습니다. 배울점이 많고 잘하는 친구들이 주변에도 너무나 많았고 저는 계속해서 위축되어 재차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수없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큰 흥미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흥미를 넘어서 실력이 있는가?’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등 여러 질문들은 저에게 자연스럽게 압박감과 불안을 가져다주었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할지 감조차 오지 않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마주하게 된 마지막 질문은 ‘나는 이 일을 사랑하는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다른 청년들과 달리 도전을 무서워했던 전 처음으로 용기를 내었습니다. 현장에 직접 한번 나가보자고. 실무에 나가 누구보다 열심히 해보고 그때 나는 내 일을 정말 사랑하는지 확인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우연히 알게 된 대전형 코업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기회를 맞아 ‘대전 MBC 기획사업부 뉴미디어팀’ 인턴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02.

### 대전형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을 만나고

셀레는 마음으로 처음 대전 MBC의 정문 앞에 들어섰을 때는 이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코업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아무래도 쉽게 찾아올 수 없는 곳이라는 생각에 더 체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며, 프로그램 기간이 긴 시간은 물론 아니지만 ‘내가 지금 현재 이곳에서 느끼는 모든 것들을 끝까지 간직하고 이곳에서 목표하는 것들만은 꼭 이루고 가자’, ‘이 마음을 잃지 말자’는 생각과 함께 들어선 대전 MBC에서 저는 기획사업부 소속 뉴미디어팀으로 들어가게 되어 유튜브 콘텐츠를 직접 촬영, 제작,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게 주어진 일은 ‘갤러리M 전시회 홍보 영상 제작’이었습니다. MBC 1층 갤러리 공간에 매주 1회 진행되는 작가님들의 전시회의 그림 작품들을 한 작품 한 작품 촬영하고 편집하여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하는 업무였습니다. 처음에는 사수분께서 알려주시는 촬영 기술에 관한 내용들을 따라가기 급급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법 노하우가 생기게 되었고 특히 전과 달라진 제 마음가짐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는, 전시 공간에는 대부분 20점 정도의 그림들이 전시가 되는데 실제로 유튜브 영상에는 영상 시간 분량이 정해져 있어 7~8작품 정도가 한 영상에 올라가게 양식이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렇게 영상 제작을 위해 촬영하고 있는 중에 그때그때 해당 전시회 작가님들과 만나볼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저도 디자인을 전공했다보니 저보다 미술업계에 오래 활동 하신 어찌면 선배님들에게 듣는 조언과 작품 내용들은 하나같이 이 곳이 귀한 자리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가벼운 담소를 나누다보면 어느 한 분 할 것 없이 그들 모두가 진심으로 그림을 사랑하는 작가님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에 제가 앞서 스스로에게 고민했던 질문 ‘나는 이 일을 사랑하는가?’

에 대한 해답을 어쩌면 작가분들에게서 찾을 수도 있겠구나란 걸 느끼기도 했습니다.

또한, 혹여 이분들은 이번 전시가 인생의 마지막 전시일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단순히 시간에 쫓겨 성의 없게 촬영하는 일이 생겨선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일 수 있는 것처럼 나도 최선을 다해 그분들의 마지막일 수 있는 순간을 멋지게 담아내보자며 더 심혈을 기울여 촬영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만나뵙지 못할 작가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서로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얻고 그들과 같이 저도 이 일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를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주된 업무 중 대표적인 두 번째 업무는 ‘목면가왕! 목소리를 찾아라!’라는 이름의 라디오 프로그램의 현장을 촬영하고 편집 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대전 MBC는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 전국 무명 트로트 가수분들이 방문하여 라디오를 진행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직접 라디오 부스에 함께 들어가 DJ분과 가수분을 약 50분가량 촬영하고 이를 편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라디오 부스에 들어가 그 현장을 눈으로 담을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설레었습니다. 평소 귀로만 들던 라디오의 현장과 진행 형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일은 지금 생각해도 값진 경험인 것 같습니다. 또 촬영을 진행하면서 내용 파악을 위해 경청함도 물론 있지만 나름대로 무명이라는 것에 대해 가수분들의 고충과 그림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 대해 듣게 되니 저도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아가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마음을 전해주시는 가수분들께서 노래를 부를 때 저는 잠시나마 카메라 감독으로 임하게 된 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무언의 웃음과 여러 리듬을 타며 몸짓으로 같이 노래를 즐기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관객이 없는 조용한 라디오 부스실에서 노래를 부른다면 긴장도 되고 나 한 명이라도 관객의 입장으로 열심히 호응해준다면 어쩌면 가수분들의 본 실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또한 앞서 갤러리M 전시회와 같이 이분들의 마지막 무대일 수도 있으니였습니다.

라디오 특성상 출연인 외에 소리가 담기면 안되기에 박수 또는 추임새를 넣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할 수는 없으나 프로그램이 끝나고 가수분께서 카메라 감독님이 환하게 웃어주시고 즐겨주셔서 더 잘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듣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런 작은 말 한마디에 저는 점점 촬영이 재밌어졌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좋은 기억을 선물하는 일이 더 하고 싶어졌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전공에 대해 고민하던 중**

**우연히 알게 된**

**대전형 코업 프로그램으로**

**내가 진정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냈습니다!**



제법 일이 익숙해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코업 프로그램의 종료일이 다가 올수록 아쉬움이 더 커졌고 떠나기가 아쉬웠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일이든 기회가 있으면 더 배울 수 있다는 욕심이 생겨 자신감 갖고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기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곤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대전 MBC는 '로컬푸드파머스161'이라는 로컬푸드 농수산 직거래센터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미디어팀에서는 파머스를 이용하는 농부님들의 농가를 방문하여 하루 일과를 촬영해 로컬푸드 파머스의 홍보 혹은 농부님들의 농사 노하우, 농부님들의 따뜻한 정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합니다.

그러나 농부님들의 일과 특성상 새벽 촬영이 주를 이루는데 원래 인턴 직원은 정해진 근무 시간 외에는 일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경험도 오직 지금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담당관님께 부탁드려 새벽 촬영에 종종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외부 촬영을 나가 현장에서 보조 카메라 담당으로 촬영을 진행하고 농부님들과의 인터뷰에서 과정속에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직접 재배하신 농작물도 주셔서 감사하게 받고 따뜻함을 얻게 되니 몸은 힘들 수 있으나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더 즐거워졌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여러 값진 경험들은 코업 프로그램 사업 참여 이전의 저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저를 기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발전시켜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코업 프로그램을 선택한 나 자신이 정말 대견했고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서슴치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자고 가슴에 새기게 된 경험으로 남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 03.

현재의 나,  
그리고  
앞으로의 나

## 진짜 무대는 지금부터! 경험은 콘텐츠가 된다.

코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서 저는 전공 능력도 많이 향상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제 자신의 마음가짐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전공에 대한 고민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이전 많이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저는 촬영하는 걸 좋아하고 여러 사람과 만나며 함께 온기를 나누는 일을 사랑합니다. 코업 프로그램을 통해 일할 수 있었던 대전 MBC에서의 좋은 추억과 감히 쉽게 얻을 수 없는 이 수많은 경험들은 제게 방송국이라는 목표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험은 콘텐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즐거웠던 순간, 감사했던 순간, 소중한 순간 하나하나가 모여 저를 이루고 이러한 순간들을 저도 누군가에게 선사할 수 있는 영상디렉터가 되고 싶습니다. 진짜 무대는 지금부터지만 그 발판에 코업 프로그램이 버텨주는 한 계속해서 성장하는 저를 발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더 나은 프로그램 더 좋은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많이 생겨나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목표를 심어주고 그 꿈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에 일조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co-op과 함께 성장한 나, 새로운 도전을 향해

## 입선

이름 주유정

대학명 충남대학교

실습기업 대전문화방송

참여기간 2024년 4월 ~ 7월



## 01.

사업참여  
이전의 나

## “휴학해서 인턴도 하고 자격증도 따면서 자기 개발할 거예요”

휴학할 당시에 아버지께 말씀드린 내 포부이다. 휴학보다 빠른 졸업을 원하셨던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선 그럴듯한 이유가 필요했다. 무휴학 졸업이 거의 없는 요즘, 하나둘 휴학한 친구들을 보니 왜인지 나도 해야 할 것 같았고, 하고 싶었다. 그렇게 한 번 마음을 가지니 어느새 난 휴학 신청을 하고 있었다.

휴학 신청 당시엔 소위 말하는 ‘갓생’을 살겠다는 다짐 하에 유튜브에서 ‘휴학 생활 알차게 보내는 법’, ‘20대에게 말하는 자기 개발’ 등과 같은 제목의 동영상을 찾아보았다. 동영상을 통해 동기부여를 얻기도 하고, 공모전 및 자격증 계획도 세워보며 나의 갓생 휴학 생활을 꿈꾸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 나는 인턴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 기업에 공고를 넣어봤다. 그러나 요즘엔 인턴도 금턴이라 하지 않는가. 나의 계획과 달리 인턴 합격은 서류부터 쉽지 않았다. 그렇게 한두 곳 불합격을 받다가, 인턴 지원만으로 시간을 날릴 수 없겠다 싶어 한 영상 공모전에 참여했다. 여러 회의 끝에 좋은 아이디어도 나왔고, 기획·촬영·편집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몇 주간 공모전에 매달리며 마감 직전까지 고생했지만, 공모전에서도 나는 탈락의 아픔을 맛보게 되었다. 휴학하고 뭐 하나 이론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위기의식 때문이었을까? 정보 탐색을 많이 하다 보니 인턴 공고란 공고는 다 꺾게 되었고, 그때 처음 co-op을 접하게 되었다.

co-op은 휴학생과 졸업 유예생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에게 큰 이점이 되었다. 운영 기간 또한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아서 매력적이었다. 또 참여 기업이 다양하고, 그중엔 내가 선망하던 기업인 ‘대전문화방송’이 있어서 꼭 지원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인턴이 되어 출근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니 설레는 마음에 더욱 합격이 간절해졌다. 공고가 뜨지 않았을 때, 교내 인재개발원에 몇 번이나 문의 하며 공고가 뜨길 기다렸다. 또 작년 co-op 신청서 양식을 토대로 미리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선배들에게 첨삭 받으며 내 진정성과 간절함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대전형 코업 청년뉴리더 양성사업’을 신청하게 되었고, 간절한 기다림 끝에 대전문화방송 경영국 국장님으로부터 합격 전화를 받게 되었다. 4월 1일부터 나는 그냥 휴학생이 아닌, 인턴이 되었다.



## 02.

대전형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을 만나고

## “일 달라고 한 인턴은 처음이에요”

어느 날 사수 언니에게 들은 말이다. 대전문화방송에서의 근무는 내 생각과 매우 달랐다. 내가 근무한 부서는 방송국 전체의 회계, 인사 등을 맡는 곳이어서 인턴에게 오픈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직원분들도 어디까지 나에게 일을 시키면 좋을지 고민이 많은 눈치였고, 일이 없던 나는 일을 찾아서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이라도 좋으니 할 일을 달라고 부탁드렸다. 영수증 정리, 비품 정리, 간식 주문 등의 작은 일을 부탁하며 사수 언니는 미안해 하셨지만 난 정말 좋았다. 조금이나마 할 일이 생기니 진정으로 일원이 된 것 같았다.

일을 안 시키시는 날엔 사수 언니 자리에 찾아가서 혹시 일이 없냐고 여쭙 보기도 했다. 언니는 신기해하며 일 달라고 한 인턴은 처음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하나둘 입을 모아 칭찬해 주시니 더욱 일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니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주셨다. 매일 출근 후 우편물 분류 작업을 맡았다. 매일 하다 보니 자연스레 모든 부서의 직원 이름을 외우게 되었다. 그리고 오전 중엔 방송 3사의 시청률을 표로 정리 하여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 또, 매달 있는 시청자위원회 회의 때 회의록을 작성하는 업무를 맡게 되면서 난생처음 TV에 출연해 보기도 하였다.

뿌듯한 마음에 TV에 출연한 내 모습을 가족들에게 한껏 자랑하다가, 이젠 TV 출연도 큰 이슈가 아닐 즈음에 학교에서 ‘소통의 장’을 진행한다고 연락이 왔다. 잘 적응하여 즐겁게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만큼은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한다는 사실이 나를 설레게 했다. 점심 식사 후 인턴들끼리 모여 학교에 가서 co-op 참여 학생들의 의견을 내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소통의 장, 근로지 점검 등 co-op의 공식적인 일정이 끝나고 나니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갔다. 어느새 인턴 마지막 달인 7월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인턴은 나쁜인 부서에서 4개월간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다. 하지만 좋은 분들과 함께하다 보니 시간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다.

감사하게도 4개월 동안 사주신 밥과 커피가 몇 번인지 모르겠다. 제대로 된 사회생활은 처음이라 서툴렀던 나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알려 주시고, 과분한 관심과 사랑을 주신 대전문화방송 직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리고 싶다. co-op 사업은 종료되었지만, 지금처럼 좋은 인연이 오래 지속되길 바란다.

### 03.

#### 현재의 나, 그리고 앞으로의 나

#### “co-op을 디딤돌 삼아 도전하다”

처음엔 취업에 대해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대전문화방송에서 현장실습을 한 이후, 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는 환경 보단 정해진 범위 내에서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게 성향에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처럼 co-op 사업의 참여는 스펙 한 줄이 다가 아닌, 내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도움을 주었다.

내 성향을 토대로, 나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진로로 삼게 되었다. co-op에서의 현장실습 경험을 기반으로 더 다양한 경험을 쌓아보고자 공기업 체험형 인턴에 지원했다. 사무 직렬을 채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전문화방송에서의 경험은 큰 도움이 되었다.

방송국은 3~4년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허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현장실습 했던 때와 겹쳐서 자료 정리를 도와드린 적이 있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체험형 인턴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면접에서도 사무 직렬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 결과, 체험형 인턴에 합격하게 되었다.

특별한 스펙이 없었던 나는, 직무에 관련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co-op 현장실습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난 대전형 코업 청년뉴리더 양성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디딤돌 삼아 끊임없이 도전하여 내 꿈을 위해 정진할 것이다.



#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내일을 향한 걸음

## 입선

이름 한다인

대학명 배재대학교

실습기업 대전YWCA

참여기간 2024년 3월 ~ 6월



## 01.

사업참여  
이전의 나

## “무거운 기대의 그림자 아래서, 내 자신을 마주하려 했던 나”

저는 항상 개인적인 성취보다는 부모님이나 교수님,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로 인해 학점이나 활동에서 항상 무조건 최상위를 목표로 삼았고, 결과에 대한 강한 압박감을 느끼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얻었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그때마다 느끼는 실망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노력에 비례하는 성과를 얻지 못할 때마다 자존감은 점점 낮아졌으며, 점차 원래의 제 모습도 잃어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점차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조별 활동을 할 때도 조원들과 역할을 나누는 과정에서 제가 자신 있는 파트는 피피티 작업이었지만, 그 의견을 표출하지 못하고 항상 남는 파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자신 있는 부분을 맡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대에 또 부응하지 못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결국에는 부족한 파트를 맡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주변인의 기대에 맞추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스스로에게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 자신을 점점 더 제한하게 되었고, “무조건 잘 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면서 그때마다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것보다는 실패하지 않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감을 더 잃게 했고, 점점 더 움츠러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업 청년뉴리더 양성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고, 교수님께서 “대전 YWCA 인턴 할 생각이 있는지”라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큰 걱정이 되어,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이 컸지만 결국 저는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해보자”는 마음으로 참여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남들의 기대에 맞추어 살면서 제 본래 모습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었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더 발전시켜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싶었습니다.

코업 청년뉴리더 양성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동안 미뤄왔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참여 직전까지 불안하고 두려움이 앞섰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성장과 경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결과보다는 경험을 통해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절실한 순간은 없다”는 마음으로 결단을 내렸고,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둘러싼 환경에 관계없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 02.

대전형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을 만나고

## “직무 경험을 넘어 나를 이해하는 여정”

대전형 코업 청년뉴리더 양성사업에 참여하며 대전YWCA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경험은 제 직무 능력을 확장하고, 저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며 저 자신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 다양한 업무를 맡으면서 제 강점과 부족한 점을 파악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직무가 나에게 잘 맞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기획 업무에 대해서도 흥미를 느끼며, 점차 직무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대전YWCA의 기관에서는 여성 인권과 성평등 그리고 아동 보호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복지와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 업무를 맡으며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는 자립 준비 청년 주거지원 사업의 기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획안을 작성해 본 경험이 없어서 낯설고 어려웠지만, 국장님께서 주신 조언을 받으며 아동 양육 시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진행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인터뷰에서는 ‘2024년 자립 수당이 월 50만 원으로 알고 있지만, 이 수당만으로 청소년들이 자립하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전YWCA에서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이 아동 양육시설에서 퇴소하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담당자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의 질문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자립 준비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필요로 하는 지원 방안에 대해 깊이 이해하여 기획안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기획안을 작성한 후 실제 실행 단계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 과정에서 얻은 자신감과 기획의 흐름을 익히는 경험은 매우 중요한 학습이었습니다.

또한, 박람회 부스 운영을 맡으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대상이 어르신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관심을 끌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한 끝에 ‘예방’을 주제로 퀴즈를 기획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관심을 유도하며 실질적인 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퀴즈를 진행하며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며 기획과 실행의 재미를 느꼈고, 점차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는 경험이 즐거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획과 실행에서의 능력을 키울 수 있었지만, 조직 내 협력과 의견 조율에서의 어려움도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같이 인턴을 했던 다른 학생과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유연함과 소통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대전형 코업 청년뉴리더 양성사업을 통해 대전YWCA에서의 인턴 경험은 제 직무 능력을 확장하고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기획 업무와 박람회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강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명확히 알 수 있었으며, 기획과 실행 능력을 키우고 팀 내에서의 협업과 갈등 해결에 있어 유연함과 소통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자립 준비 청년 주거지원 사업의 기획 과정에서 아이디어 구상과 실행 계획 작성에 강점을 보였고, 박람회 부스 운영에서는 어르신들과의 소통에 능숙함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의견 조율과 협력 과정에서 때때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제가 무엇을 잘하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자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다양한 업무를 맡으면서  
제 강점과 부족한 점을 파악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직무가  
나에게 잘 맞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 03.

현재의 나,  
그리고  
앞으로의 나

## “변화를 향한 첫걸음, 이제는 자신감을 찾고 새로운 도전을 향해”

대전형 코업 청년뉴리더 양성사업에 참여한 경험은 저에게 단순한 직무 체험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과거에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강박에 시달리며 저 자신을 잃어갔고 그로 인해 자신감과 자아를 되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을 통해 강점과 부족한 점을 명확히 파악하며,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중요한 변화의 시점이었으며,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더욱 확고히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기획과 실행을 모두 경험하여, 제 강점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구상과 소통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반면, 협력과 갈등 해결에서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직무 체험 전에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결과에 집착했지만, 이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수와 실패에서 배워가며 점차 더 나은 결과를 내는 과정을 중요시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저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 강점을 더욱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특히, 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고, 기획 업무에 대한 흥미가 커졌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기획 공모전이나 프로젝트가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제 직무 능력을 더욱 확장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배운 교훈을 토대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전형 코업 청년뉴리더 양성사업을 통해 저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성장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다 보니 자신감을 잃고 자존감을 찾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배움을 얻으며 성장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제 강점을 더욱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더 많은 도전에 임할 것입니다. 항상 "지금보다 절실한 순간은 없다"는 마음으로 제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며, 꾸준히 배우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성장을 향한 도전, 품질관리 전문가로의 여정



## 입선

이 름 한주형

대학명 충남대학교

실습기업 스몰랩

참여기간 2024년 9월 ~ 12월



## 01.

사업참여  
이전의 나

2020년 대학교에 합격한 후 누구보다 신나는 대학생활을 보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대학 첫해부터 비대면 수업이 시작되었고, 제가 꿈꾸던 대학생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험과 실습을 비롯한 대면활동은 크게 축소되었으며, 친구나 선배들과의 교류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취업에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얻은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3학년이 되어 오프라인 수업이 재개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실무 경험을 쌓으며 저 스스로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대전형 코업 청년뉴리더 양성사업을 알게 되었고, 이는 제가 부족했던 경험을 채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느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다양한 배움을 통해 저의 진로를 구체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품질관리팀에서의 경험은 제가 전공 지식을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품질관리라는 분야가 제게 적합한지 탐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조직 내 관계 형성과 문제 해결 능력까지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대전형 코업 프로그램은 저에게 단순한 직무 경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 부족했던 실무 경험을 보완함으로써 제 전공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자 저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역 기업과의 협력 경험을 쌓는 것은 저의 경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대전형 코업 청년뉴리더 양성사업에 참여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저의 진로를 더욱 구체화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 02.

대전형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을 만나고

대전형 코업 청년뉴리더 양성사업에 참여하면서 품질관리라는 직무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품질관리팀에서 인턴십을 시작했을 당시 저는 품질관리가 단순히 제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평가하는 업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품질관리팀이 단순한 품질 검사를 넘어 생산 공정 전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직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세운 가장 큰 목표는 품질관리 직무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이를 통해 직무 역량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업무였던 자재 검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직면했습니다. AQL(Acceptable Quality Level)을 기준으로 꼼꼼히 검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불량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AQL은 전수 검사가 어려운 경우 샘플링을 통해 제품 품질을 평가하며 고객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결함률을 정의하는 기준입니다.

처음에는 검수를 더욱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량 발생했는지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서 팀장님과 함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검수 기준을 강화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기존 AQL 2.5 표준보다 더 많은 수량을 검사하기로 하고 한 박스당 100개 이상의 샘플을 검수했습니다. 문제는 제품의 특성상 AQL 2.5 기준으로 검수를 진행했을 때 샘플의 신뢰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기준보다 샘플링 수를 대폭 늘리는 전략을 수립했고 한 박스당 100개 이상의 샘플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되었지만 결국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작은 변화가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우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개선 방안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 문제 해결 능력과 끈기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부 시절 교과서와 실험실에서 배웠던 HPLC(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와 TOC(총 유기탄소 분석기) 같은 장비를 현장에서 직접 다루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론과 실무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몸소 체험하며 품질관리 직무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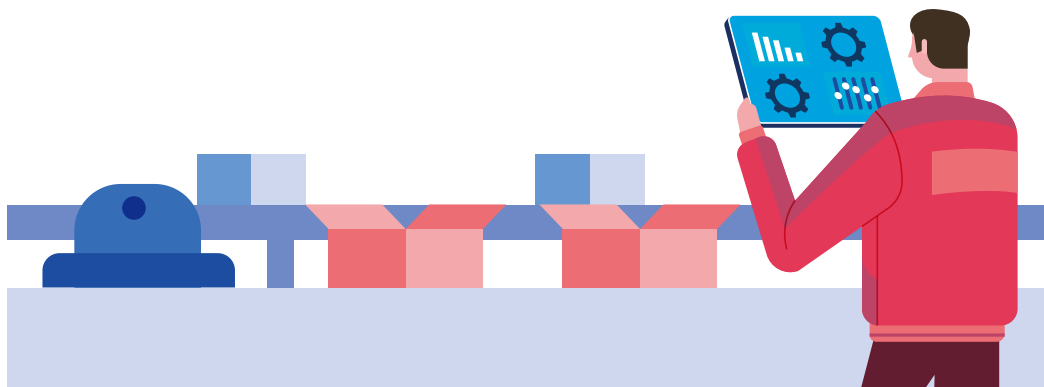


대전형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을 통해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배우고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여러 산업에서 경험을 확장해  
품질 관리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계획입니다.

특히 미생물 시험을 포함한 다양한 실습 경험은 품질관리가 단순히 제품의 결함을 찾아내는 일을 넘어 제품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체계적인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게 큰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품질관리라는 직무에 더 큰 흥미와 열정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대전형 코업 프로그램을 통해 품질관리 직무가 단순히 제품 검사에 국한되지 않고 생산 과정 전반에서 품질을 관리하며 생산관리팀, 영업팀 등 다양한 부서와의 협업과 소통이 중요한 직무임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불만 사항이 접수되었을 때 영업팀과 긴밀히 협력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품질관리 직무가 기업의 전반적인 운영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은 제 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현장에서의 실행력과 책임감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대전형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은 단순히 직무 경험을 쌓는 것을 넘어 제가 가진 가능성을 새롭게 확장하고 도전의 즐거움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 03.

현재의 나,  
그리고  
앞으로의 나

대전형 코업 청년뉴리더 양성사업은 단순히 직무를 경험하는 것을 넘어 저 자신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저는 품질관리라는 직무가 비교적 단순한 업무일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품질관리가 조직 내 여러 부서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생산 과정 전반을 아우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서 강조되었던 실무 중심의 학습은 제가 그동안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을 보완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현장에서 팀원들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며,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아 실행했던 경험은 제게 실질적인 직무 역량뿐만 아니라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체 검수 과정에서 기존의 검수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고 개선안을 도출하며 팀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던 경험은 앞으로의 직장 생활에서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주도적으로 배우고 도전하는 태도를 길러 주었습니다. 남은 인턴 기간 동안에는 맡은 역할을 더욱 능숙하게 수행하며 팀과 회사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또한 품질 관리 프로세스의 개선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제안하며 더 깊이 있는 직무 이해를 쌓아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품질관리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품질관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또한 품질관리라는 직무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요구되는 세부적인 기준과 기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제약, 바이오, 식품 등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전문 지식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제 장기적인 목표는 품질 관리 부서의 리더로 성장하여 조직 내 품질 혁신을 이끄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품질 향상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품질관리 분야에서 얻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 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경험은 단순히 직무 역량을 키우는 것 이상으로 제 스스로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미래의 커리어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이 경험을 발판 삼아 품질 관리라는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며 조직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 3

## PART



|             |                                           |     |
|-------------|-------------------------------------------|-----|
| <b>최우수상</b> | 인턴십을 통한 나의 실무 디자이너로서의 첫 여정 - 류지원          | 88  |
| <b>우수상</b>  | 캠핑용품 마케팅 인턴십을 통해 성장한 3개월 - 김수연            | 94  |
|             | 실패를 딛고 이룬 도약: 청년인턴의 성공 스토리 - 문서현          | 100 |
| <b>입선</b>   | 엄마에서 사회인으로:<br>청년인턴 사업을 통한 제2의 삶 시작 - 권혜진 | 104 |
|             | 새로운 시작이 되어준 청년인턴 지원사업:<br>마중물 - 김성환       | 108 |
|             | 청년 인턴사업 드론개발 후기 - 김창현                     | 112 |
|             | 자신감과 용기를 끌어 올려 준 소중한 경험 - 오서진             | 116 |
|             |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로<br>나갈 수 있게 해준 '청년인턴' - 이우철   | 120 |

# 2024년 청년인턴 지원사업 체험수기



# 인턴십을 통한 나의 실무 디자이너로서의 첫 여정

## 최우수상

이름 류지원

기업명 DMX

참여기간 2024년 3월 ~ 5월



## 01.

사업참여  
이전의 나

## 디자이너를 꿈꾸게 된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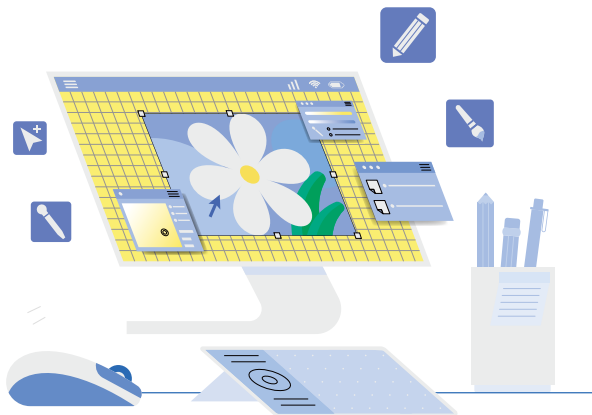
어릴 적부터 저는 낙서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매일 빠지지 않고 낙서를 하며, 제 상상력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고, 하루하루 쌓인 그림들은 자연스럽게 저의 취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에게 틀에 박히지 않은 상상력을 길러준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저는 미술 관련 방과후 수업과 동아리에 꾸준히 참여하며 그림을 그리는 즐거움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대학교 진학과 제 진로를 고민하던 중, 제 미래를 생각해보았을 때 질리지 않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은 그림과 관련된 직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자인과에 진학하기로 결심하였고, 대학교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경험을 쌓으며 전문성을 키워나갔습니다. 낙서에서 시작된 취미가 디자인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졌으며, 꿈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 대전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지원하며

디자이너 지망생으로서 인턴십에 지원한 이유는 실무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적용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나 수 없이 해왔던 과제물들을 통해 기초적인 디자인 지식이나 스킬을 배웠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무에서의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디자인 툴을 활용하고, 팀원들과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역량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전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통해 제가 궁금했던 많은 것들을 배우기 위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02.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만나고

## 인턴십을 진행하며

제가 인턴으로 근무한 회사는 DMX(디엠엑스)로, 종합 디자인 전문회사입니다. DMX는 시각디자인과 제품디자인 두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팀원들은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로, 협업을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턴십 기간동안, 저는 다양한 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팀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디자인의 중요성과 팀워크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로 맡았던 업무는 브랜딩, 패키지 디자인, GUI 디자인부터 각종 수정 작업, 시장조사, 샘플 제작, 사업계획서 작성 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작업은 브랜딩, 패키지 디자인, GUI 디자인 이었던 것 같습니다.

## 브랜딩을 경험한 후 느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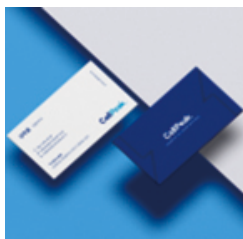
브랜딩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번째로, 브랜딩은 단순히 로고나 시각적 요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의 정체성과 가치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 부분이 정확히 전달되었을 때 소비자가 공감하며 브랜드를 소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둘째, 항상 소비자의 시선에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성공적인 브랜딩은 소비자를 공감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고객의 피드백을 수집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디자인 방향을 수정하는 과정은 브랜딩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임을 느꼈습니다.

01 대전 청년인턴 지원사업  
기간동안 진행한  
패키지 디자인  
<이차전지 전문 제조 브랜드  
셀픽(CELLPEAK)>

01

CellPeak.



셋째, 협업의 중요성을 크게 느꼈습니다. 브랜딩 작업은 다양한 팀원의 의견과 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마케팅, 디자인, 제품 개발 등 여러 분야의 팀원과 함께 작업하면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통합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팀워크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과거 대학생 시절 개인주의 성향이 강했던 저는 이번 작업으로 더욱 팀워크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브랜딩은 멈추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과정임을 배웠습니다. 브랜드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해야 하며,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합니다. 브랜딩 작업을 통해 브랜드가 시대에 맞춰 진화할 수 있냐 없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02 대전 청년인턴 지원사업  
기간동안 진행한  
패키지 디자인  
<좌. 샴푸 패키지>  
<우. 검사기 패키지>



### 패키지 디자인을 경험한 후 느낀점

패키지 디자인은 단순히 포장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의 첫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디자인 과정에서 제품의 특성과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패키지에 담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둘째, 소비자의 시각에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패키지는 소비자가 제품을 처음 접하는 순간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요소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시선을 끌고, 소비자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하며, 이를 위해 시장 조사는 필수이고, 소비자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것도 패키지 디자인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현대 소비자들은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재료와 디자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브랜드의 이미지와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패키지 디자인은 다양한 요소를 결합한 복합적인 작업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패키지 디자인은 예쁘고 눈에 띄면 되는건줄 알았으나, 실제 패키지를 제작할땐 인쇄 기술, 재질 선택, 제조 공정, 샘플 제작 등을 이해하고, 팀원들과 협력하여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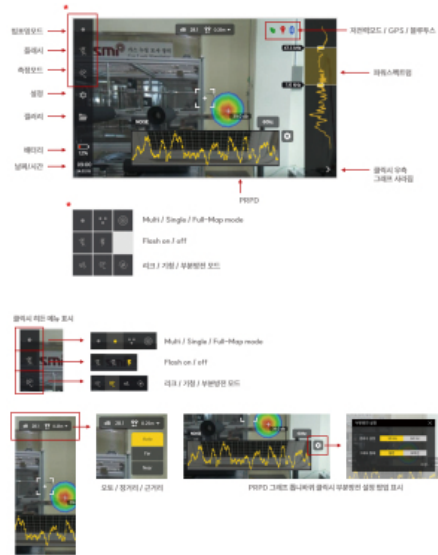
### GUI 디자인을 경험한 후 느낀점

GUI 디자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UX(사용자 경험)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GUI는 사용자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장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요소입니다. 사용자 친화적이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했습니다. 사용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둘째, 디자인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다양한 화면과 기능이 통일된 디자인 스타일을 유지해야 사용자에게 안정감을 주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화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색상, 폰트, 아이콘 스타일 등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03 대전 청년인턴 지원사업  
기간동안 진행한 GUI 디자인  
<초음파 카메라 / 베타캠>

03



셋째, 피드백과 반복의 과정이 필수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업하게 된 GUI는 초음파를 분석하여 기계 설비 상태를 측정하는 카메라였는데, 실제 카메라 모델에 디자인을 셀 수 없이 적용하며, 업체와 미팅하고 피드백을 주고 받아 끝내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GUI 디자인은 지속적으로 테스트하고 개선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적인 이해도가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느꼈습니다. GUI 디자인은 단순히 시각적인 요소에 그치지 않고, 기술적인 구현 가능성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개발자와의 협업을 통해 기술적 제약을 이해하고, 디자인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 03.

#### 현재의 나, 그리고 앞으로의 나



#### 인턴ships을 마치며

저는 인턴ships을 진행하며 회사와 잘 맞는다는 것을 느꼈고, 짧았던 인턴 기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실무를 더욱 쌓고자 정규직으로 계약하여 현재까지도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턴으로 막내 생활을 하며 힘든 적도 있었고, 때로는 마감에 쫓기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 과정이 전부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이 인턴ships을 통해 팀원들과의 협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같이 성장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매일 새로운 과제를 해결해 나가며, 저의 창의력과 디자인 문제 해결 능력이 더욱 향상된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대전 청년인턴지원사업에서 쌓은 경험은 저에게 디자인에 대한 열정을 더욱 키워주었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시각 디자이너로서 다양한 프로젝트에 도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디자인을 통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발전하는 디자이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캠핑용품 마케팅 인턴십을 통해 성장한 3개월

## 우수상

이름 김수연

기업명 (주)캡스톤

참여기간 2024년 8월 ~ 10월



## 01.

사업참여  
이전의 나

2024년 여름,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통해 캠핑용품 전문 회사 (주)캡스톤에서 마케팅 부서 인턴으로 근무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 회사에서는 캠핑 필수품인 가스버너, 냄비, 후라이팬, 토치 등의 주방용품을 소비자에게 더 친숙하게 알리는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며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또한, 이곳에서 추천한 스마트폰 사진 촬영 강의에 참여하면서 제품 촬영에 대한 전문 지식까지 쌓을 수 있었다. 지원사업 덕분에 안정적 환경 속에서 이런 다양한 기회를 경험하며 실무 역량을 높였고, 캠핑용품 산업과 마케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얻을 수 있었다.

## 02.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만나고

## 캠핑용품 및 주방용품 마케팅 전략 기획

캠핑용품과 주방용품의 마케팅은 각각 다른 소비자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캠핑용품은 경량성, 내구성, 그리고 수납 편리성이 중요한 반면, 주방용품은 실내에서의 편리한 사용과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기능이 중요한 요소였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캠핑 커뮤니티와 주방용품 사용자 리뷰를 면밀히 분석하고 설문 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했다. 그 결과, 캠핑용품에서는 가볍고 내구성이 강한 가스버너와 휴대하기 좋은 냄비와 후라이팬이 선호되며, 주방용품에서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성과 세련된 디자인이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간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소비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셜 미디어 캠페인과 광고 기획을 진행했으며, 캠핑용품의 특성과 주방용품의 편리함을 각각의 컨셉으로 표현하려 했다. 예를 들어, 캠핑용품 광고에서는 "자연 속에서도 집처럼 편안한 요리 경험"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해 캠핑용품의 가벼움과 견고함을 강조했다. 반면, 주방용품 광고에서는 일상 속 고급스러운 요리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제품의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을 부각하는 비주얼 광고를 기획했다.



소셜 미디어에 캠핑과 주방 상황에 맞춘 짧은 영상 콘텐츠와 제품 사용 장면을 업로드한 결과, 소비자들은 댓글을 통해 제품의 특징에 관심을 보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캠핑용품의 경량성과 내구성, 주방용품의 다목적 활용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기심과 호평이 이어지며, 제품에 대한 신뢰를 쌓아갈 수 있었다.

### 주방용품 제품 촬영을 통한 소비자 신뢰 구축

캠핑용품 및 주방용품을 효과적으로 마케팅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실제 사용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다. 특히 소비자들이 캠핑에서 제품을 사용할 때의 실용성과 편리함을 강조하는 비주얼 콘텐츠가 필요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비주얼 광고를 기획했지만, 점차 고품질의 이미지와 영상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웠다. 마케팅 부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진 촬영 강의를 수강하는 것을 추천했고, 나는 지원사업의 강의를 통해 사진 촬영의 기초와 응용을 배울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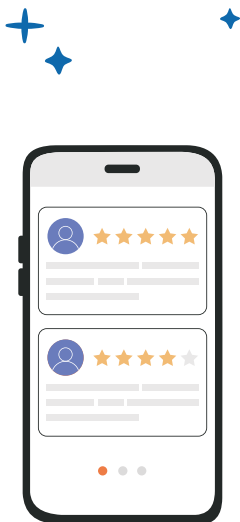
강의는 10월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4주간 진행되었으며, 셔터 스피드, 조리개, 감도 같은 기본적인 사진 이론을 배우면서 사진의 기초가 단단해졌다. 교수님의 세심한 설명 덕분에 캠핑용품 제품의 질감과 기능을 제대로 표현하는 사진 기법을 알 수 있었고, 무엇보다 카메라와 조명을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예를 들어 후라이팬의 가벼움을 강조하기 위해 제품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해 보았고, 빛을 조정해 가볍고 견고한 느낌을 전달하는 기술을 익혔다. 또한, 짐벌 사용법을 배우면서 영상 촬영 시의 흔들림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상을 찍을 수 있었고, 이러한 영상들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다.

### 소비자 리뷰 대응과 개선을 통한 문제 해결

마케팅 부서에서는 소비자 리뷰와 제품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중요한 업무로 삼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캠핑용 냄비의 손잡이가 사용 중에 뜨거워져 불편하다는 소비자 의견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확인했다. 제품 특성상 안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제품 개발 부서와 협력하여 손잡이를 개선할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소비자 불만이 발생한 이후 개선점을 찾아내는 것은 처음 겪는 일이었기에 다소 긴장되었지만, 제품 개발 부서와의 회의와 피드백을 통해 소비자 의견을 실제 제품 개선으로 이어가는 과정을 배울 수 있었다.

개선된 시제품이 출시된 후, 마케팅 부서에서는 개선 내용을 알리는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여 소비자에게 냄비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었다. 이와 같은 경험은 단순히 제품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었다. 실제로 개선된 제품을 시범적으로 사용한 캠핑 인플루언서들의 후기와 사진을 활용한 마케팅 콘텐츠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캡스톤 제품의 신뢰성이 높아졌다는 평을 들을 수 있었다. 이처럼 소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개선 노력을 통해, 제품의 신뢰도를 높여가는 방법을 몸소 배울 수 있었다.



### 인턴십과 주말 강의를 통한 폭넓은 실무 경험

지원사업을 통한 인턴십 덕분에 회사에서도 청년 인턴으로서의 성장을 응원하며, 점진적으로 더 많은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주말에 들을 수 있는 사진 촬영 강의를 추천해 주었고, 이를 통해 촬영 스킬이 향상되어 마케팅 콘텐츠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 특히 강의를 통해 배운 짐벌 사용법 덕분에 제품 사용 영상을 찍을 때 흔들림을 줄여 더욱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 짐벌을 활용해 가스버너를 사용하는 장면이나 후라이팬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모습을 안정적으로 촬영하며, 소비자들이 제품의 실제 사용감을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회사에서는 이러한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더 많은 마케팅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주었고, 인턴으로서도 팀의 일원으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만약 이와 같은 체계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인턴으로서의 실무 경험을 이토록 자신감 있게 쌓을 수 없었을 것이다. 지원사업과 회사의 안정적 환경 덕분에 주어진 업무에 몰입하며, 다양한 도전 과제에 긍정적으로 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 인턴십 막바지에 참여한 특별한 교류의 기회

인턴십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 인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자리일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참여해보니 각 회사에서의 인턴 경험을 나누는 것이 무척 흥미롭고 도움이 되었다. 특히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동 중인 인턴들이 모이다 보니, 캠핑용품이나 주방용품과는 전혀 다른 직업군에서의 마케팅 접근 방식과 소비자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신선하고 유익했다. 새로운 직무와 다른 산업의 이야기는 내가 속한 분야와 비교해보며 색다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각 회사의 운영 방식과 복지, 그리고 인턴으로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다른 인턴들이 자신의 회사에서 겪는 고충과 장점을 공유하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타 회사에서는 인턴들에게 어떤 복지가 제공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흥미로웠다. 서로의 경험을 통해 각 회사의 장단점이나 문화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었고, 이러한 교류를 통해 회사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배움을 알게 되었다.

특히, 마케팅 직무가 같은 인턴들과의 대화는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 각자 회사의 마케팅 방식, 소비자 타겟팅 전략, 그리고 예산이나 일정 관리에 대한 방법 등을 공유하면서 직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했다.

같은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수다를 떨며,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새로운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었다. 예를 들어, 옆에 앉은 인턴 친구는 자신이 속한 회사에서 소비자 리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만 사항에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고,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여가는 방식을 알 수 있었다. 나 역시 이러한 접근 방식을 배울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이 교류의 시간은 인턴으로서의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이기도 했다. 다양한 회사에서 온 인턴들과 경험을 나누며 나의 직무 경험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다들 인턴으로서 비슷한 고민과 목표를 가지고 있기에 서로 깊이 공감할 수 있었고, 앞으로의 업무에서도 더 많은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서로의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의 역할과 성장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커졌으며, 직무에 대한 이해와 열정도 높아졌다.



캠핑용품 전문 회사에서 마케팅 인턴으로 근무하며  
소비자 타겟팅, 제품 촬영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고,  
지원사업과 회사의 도움으로  
한층 더 성장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 03.

현재의 나,  
그리고  
앞으로의 나

## 남은 아쉬움과 앞으로의 다짐

짧은 3개월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지만, 아쉬움도 남았다. 특히 캠페인의 성과를 장기적으로 관찰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캠핑용품은 계절과 트렌드에 따라 소비자 반응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제품이 소비자에게 어떤 인상을 남기고 지속적으로 어떤 성과를 낼지 지켜보고 싶었지만, 시간 부족으로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했다. 또한, 주말에 수강한 촬영 강의를 통해 배운 내용을 더욱 다양한 콘텐츠에 적용해보고 싶었으나, 인턴 기간 내에 모든 아이디어를 실현해 보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턴ships을 통해 실무적 경험과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 지원사업을 통한 체계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다. 캠핑용품 마케팅에 필요한 실무 지식과 소비자 타겟팅 능력을 배울 수 있었으며, 소통의 중요성과 책임감 또한 깊이 체득하게 되었다.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이번 인턴 경험은 나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지원사업과 회사를 통해 가능했던 이 소중한 인턴 경험은, 나의 커리어와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 실패를 딛고 이룬 도약: 청년인턴의 성공 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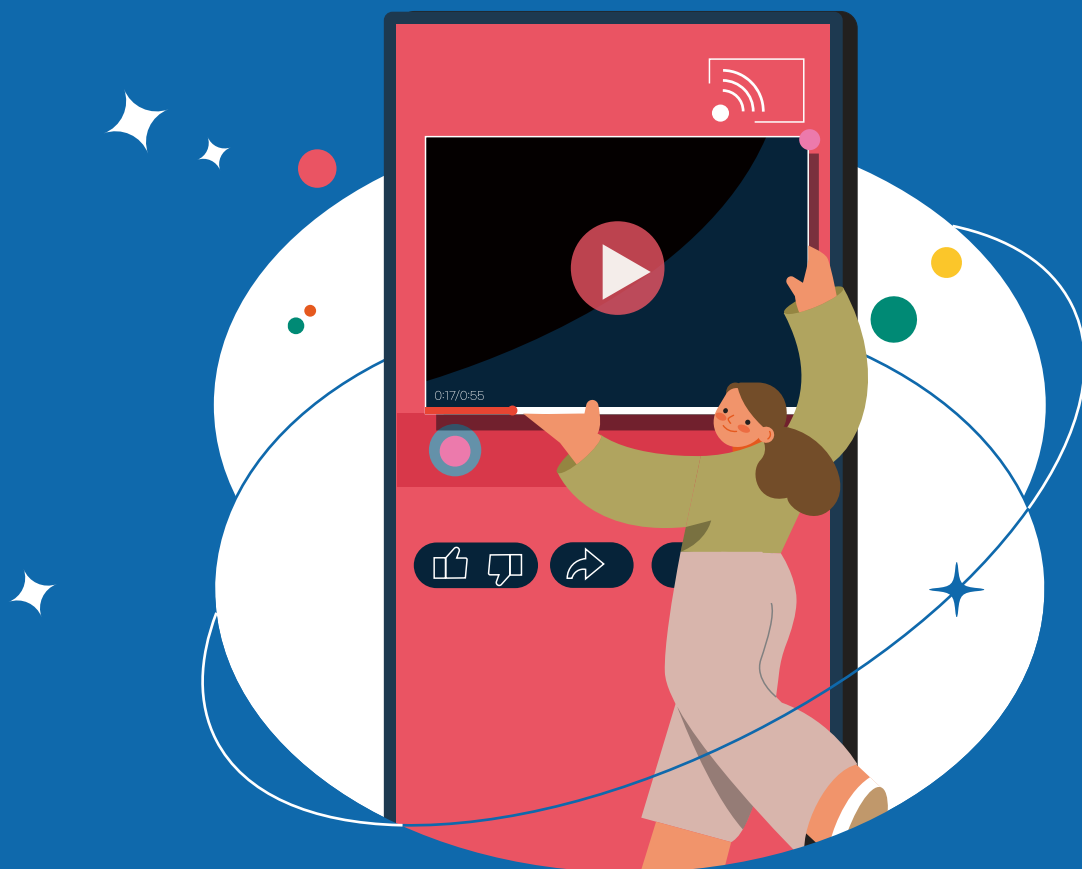


## 우수상

이름 문서현

기업명 플래닛투어

참여기간 2024년 3월 ~ 6월



## 01.

사업참여  
이전의 나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건강상의 문제로 한동안 일을 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회와 단절된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날이 커지는 불안감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취업해 자신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에 스스로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후, 다시 일어서기 위해 여러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시도했지만 첫 도전은 아쉽게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첫걸음부터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러 회사에 꾸준히 이력서를 제출하며 제 가능성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헤쳐나가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채용 시장의 높은 벽 앞에서 좌절감을 느끼던 중,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알게 되었고, 이것은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고,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통해 다시 한번 취업에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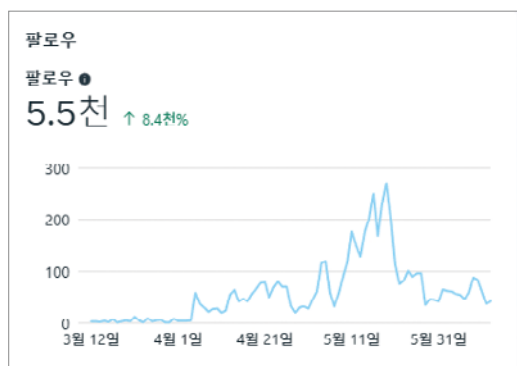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만나고

저의 첫 번째 목표는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신혼여행 전문 여행사에서 마케팅사업부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 두근거림과 설렘도 있었지만, 동시에 불안감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은 곧 의욕으로 바뀌었고, 저는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인턴 과정을 통해 회사의 정규직으로 계약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자 했습니다. 저의 주요 업무는 전공을 살려 회사를 홍보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홍보용 게시물과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고, 이는 저에게 큰 도전이자 기회였습니다.

사실 저는 디자인과 영상을 전공했지만, 건강 문제로 인해 오랜 시간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아 프로그램 사용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과거의 감각을 되찾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매일 저녁마다 관련 온라인 강의를 듣고 프로그램을 익히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렇게 매일의 노력을 통해 기술을 쌓아갈 수 있었고, 점점 더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는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제작한 콘텐츠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여행 관련 콘텐츠 계정을 운영하는 작업을 맡게 되었는데, 인턴 기간 3개월 동안 팔로워 수를 약 5,500명 증가시키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도달 계정 수는 476만 명, 조회수는 도합 약 2,000만에 달하며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매일의 작은 노력과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끈질긴 도전의 결과였습니다.



## 03.

현재의 나,  
그리고  
앞으로의 나

인턴으로 일하는 동안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저는 회사와 정규직 계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성과는 단순한 직장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전에는 스스로 사회에서 많이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자신감을 점차 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통해 저는 "나도 할 수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제게 사회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찾게 해준 것입니다.

현재 저는 회사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도전들을 마주하면서 더 많은 경험을 쌓아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 능력을 더욱 갈고닦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회사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고자 합니다. 고객에게 더 나은 여행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회사와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성장과 변화는 청년인턴 지원사업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준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저와 같이 새로운 출발을 고민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이 경험이 용기를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통해 저는 "나도 할 수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제게 사회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찾게 해준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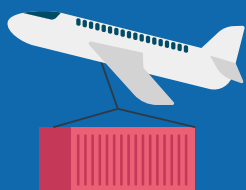
# 엄마에서 사회인으로: 청년인턴 사업을 통한 제2의 삶 시작!

## 일선

이름 권혜진

기업명 (주)원탑스튜디오

참여기간 2024년 2월 ~ 5월



## 01.

사업참여  
이전의 나

저는 연고가 없는 대전으로 시집와서 남편과 함께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이 전의 저는 어린 두 아이를 양육하며 제 이름과 정체성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산후 우울증과 육아의 어려움 속에서 일상의 고충을 나눌 상대가 없었고, 남편과의 대화의 중심은 어린 자녀들에게만 머물렀습니다.

육아로 지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한 워킹맘이 단정히 차려입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며 제 삶과 대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삶은 안정되고 완벽해 보였던 반면, 제 자신은 초라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해 유치원에 입학할 무렵, 그 워킹맘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고, 저 역시 사회생활에 도전하고 싶다는 작은 열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청년인턴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사회로 첫발을 내딛을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02.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만나고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저는 많은 것이 서툴고 부족했지만, 인턴 교육 프로그램을 참가하여 저의 역량을 키우고 저와 같이 첫 사회생활이라는 설렘을 나눌 수 있는 인턴들과의 교류를 통해 용기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전이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라는 점에서 강한 소속감과 위안을 느꼈습니다.

8년 동안 아이들의 엄마로 살아오면서 사회생활의 단절 속에 갈증을 느꼈던 부분이 청년지원 사업을 통해 해소되었고 든든한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주어진 3개월의 인턴 기간 동안 저는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인턴으로서의 열정과 의지를 발휘하여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저의 정체성을 찾고, '엄마'라는 역할 외에 사회에 기여하는 성취감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디딤돌이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최선을 다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03.

## 현재의 나, 그리고 앞으로의 나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지원사업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운영처입니다. 주요역할을 수출 초보기업을 발굴하고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실제 수출 성과를 이루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큰 보람을 느꼈으며, 저 또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올해 2월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KOTRA지원사업 홍보와 KOTRA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출 플랫폼 'Buy KOREA'를 통해 해외 바이어들에게 우리나라의 우수한 제품을 알리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 목표는 경력단절 여성과 사회 초년생 엄마들을 위한 여성기업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청년인턴 사업을 통해 시작된 저의 여정이, 훗날 성곡적인 CEO로서의 사례로 이어지길 꿈꾸고 있습니다.

끝으로 청년인턴 사업은 저의 경력과 목표에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청년인턴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턴 교육 프로그램을 참가하여

저의 역량을 키우고 저와 같이 첫 사회생활이라는

설렘을 나눌 수 있는 인턴들과의 교류를 통해

용기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새로운 시작이 되어준 청년인턴 지원사업:

# 마중물



### 입선

이 름 김성환

기업명 유엔아이기술

참여기간 2024년 4월 ~ 7월



## 01.

사업참여  
이전의 나

청년 인턴십 사업은 제게 있어 한마디로 “마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멈춰있는 수동 펌프를 작동시키기 위해선 작은 물 한 바가지가 필요했는데요. 제가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정체되어 있던 시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로 나와 어엿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던 데에는 청년 인턴십 사업이라는 마중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직장에서 9년을 근무했습니다. 외국계 자동차 부품 회사에 인턴으로 입사하여 계약직을 거쳐 마침내 정규직이 될 수 있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흘린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값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시장의 변화로 인해 회사의 긴축 상황이 닥쳤고, 또 아직 젊은 나이에 뭔가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희망퇴직을 결정했습니다.

미디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야심 차게 영상편집의 길로 나섰습니다. 독학으로 편집을 배우고 영상을 채널에 올렸고, 실제 수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로서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채찍질이 요구되는 시간 속에 저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 모든 것에 지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 있기에 이르렀습니다. 새로 발생하는 수익 없이 저축해둔 돈은 줄어만 갔습니다. 자리에 멈춘 채 점점 가라앉는 제 자신이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펌프를 돌려야 할 때,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 마중물을 넣었습니다. 바로 청년인턴 지원 사업을 통한 지금의 직장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였습니다. 청년 인턴십 사업은 제게 있어 한마디로 “마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멈춰있는 수동 펌프를 작동시키기 위해선 작은 물 한 바가지가 필요했는데요. 제가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정체되어 있던 시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로 나와 어엿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던 데에는 청년 인턴십 사업이라는 마중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정체되어 있던 시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로 나와  
어엿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던 데에는  
청년 인턴십 사업이라는 마중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02.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만나고

처음에는 이러한 지원 사업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 이러한 사업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청년인턴 지원 사업에서 했던 교육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비즈니스 에티켓에 관한 교육은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았거나 알고 있는 예절이지만, 새로운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는 인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교육이었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직장 상사를 만났을 때의 인사법, 명함을 주고받는 기본 예절 등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무례함을 느끼게 할 상황을 미리 없애는 교육은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03.

현재의 나,  
그리고  
앞으로의 나

인턴십을 하던 회사에서 계속해서 직장 생활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인턴십을 하는 동안 회사에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스타트업' 이제 막 도약을 준비하는 회사에서 생활은 저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절차대로 하면 됐던 이전 회사와는 다른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기준이 되는 새로운 회사 생활은 저에게 큰 자극이었습니다. 나의 의견과 나의 아이디어로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나타날 때 말로 할 수 없는 가슴 뜨거워짐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전 직장 생활과 프리랜서로 지낼 때와는 다른 직무지만, 다시 도전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경험들과 새로운 환경의 만남은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하다 보면 편향된 시선으로 문제를 보고 해결 방안 또한 그동안 해왔던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의 직장에서 어떤 문제로 막혀있을 때 저의 새로운 시선에서의 의견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곤 했습니다. 나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회사의 제품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볼 때 말로 못 할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의 회사에서 열심히 하며 나의 성장이 회사의 성장이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새로운 도전의 씨앗이 되어준 청년인턴 지원 사업에 감사함을 느끼며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 청년 인턴사업 드론개발 후기

## 입선

이름 김창현

기업명 플러스인

참여기간 2024년 4월 ~ 7월



## 01.

사업참여  
이전의 나

기존 드론 개발 업체에서 일하였으나 퇴사 후 좀 더 나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대전일자리 공모를 통해 기술력이 있는 드론 회사에 인턴으로 채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항상 자금, 네트워크, 경험이 부족하였으며 드론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관련 서적, 인터넷 자료를 찾아봤지만,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식은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 참여를 했습니다.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만나 혼자 하면서 실수하고 회사에서도 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업무를 할 때 실수할 수 있었지만 지원사업을 통해 들어간 인턴이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드론 개발에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이며 이거를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들어와서 배터리의 무게와 비행 시간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 대한 팁을 많이 얻을 수 있었으며, 소프트웨어 또한 비행제어 시스템에 대한 많은 공부를 하였습니다.

단순 드론 개발이라는 것이 아닌 규제와 인증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하는 부분도 세밀하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간단한 개발 업무를 맡아 드론을 개발하였으며 성공적으로 비행했을 때의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비행 테스트를 통해 실험적인 기술이 성공적으로 구현되었을 때, 한 발자국 더 성장되는 느낌이었습니다.



## 02.

### 현재의 나, 그리고 앞으로의 나

드론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혔지만, 다른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면 포기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초기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솔리드 워크스를 배우면서 설계를 하였으며 S/W접목을 통하여 드론을 개발하였지만 초기 프로토타입에서 드론이 흔들리거나 추락하는 문제를 겪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PID 제어 이론을 공부하고 반복적인 튜닝을 진행하였습니다.

센서 GPS, LIDAR 센서를 장착하고 통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Mission Planner를 이용하여 세팅 및 디버깅을 했습니다.

배터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의 무게를 줄이고,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는 설계를 지속적으 진행하여 비행시간을 늘렸습니다.

야외 테스트를 통해 넓은 공간에서 프로토타입을 직접 조종하며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추락,오류 등 크고 작은 실패를 겪으며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였습니다.

인턴사업을 참여하게 돼서 드론개발의 지식과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수 있었으며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결과에 대한 기대감과 인턴이 잘할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인턴을 통해 드론 개발은 단순히 기술적인 도전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배우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며 이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자신감은 다른 어떤 도전에서도 큰 자산이 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 대전에 있는 다른 드론 회사에 구직신청하여 좋은 드론개발자가 되고싶습니다.



이번 인턴을 통해 드론 개발은 단순히 기술적인 도전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배우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며  
이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자신감은 다른 어떤 도전에서도  
큰 자산이 된 거 같습니다.





# 자신감과 용기를 끌어 올려 준 소중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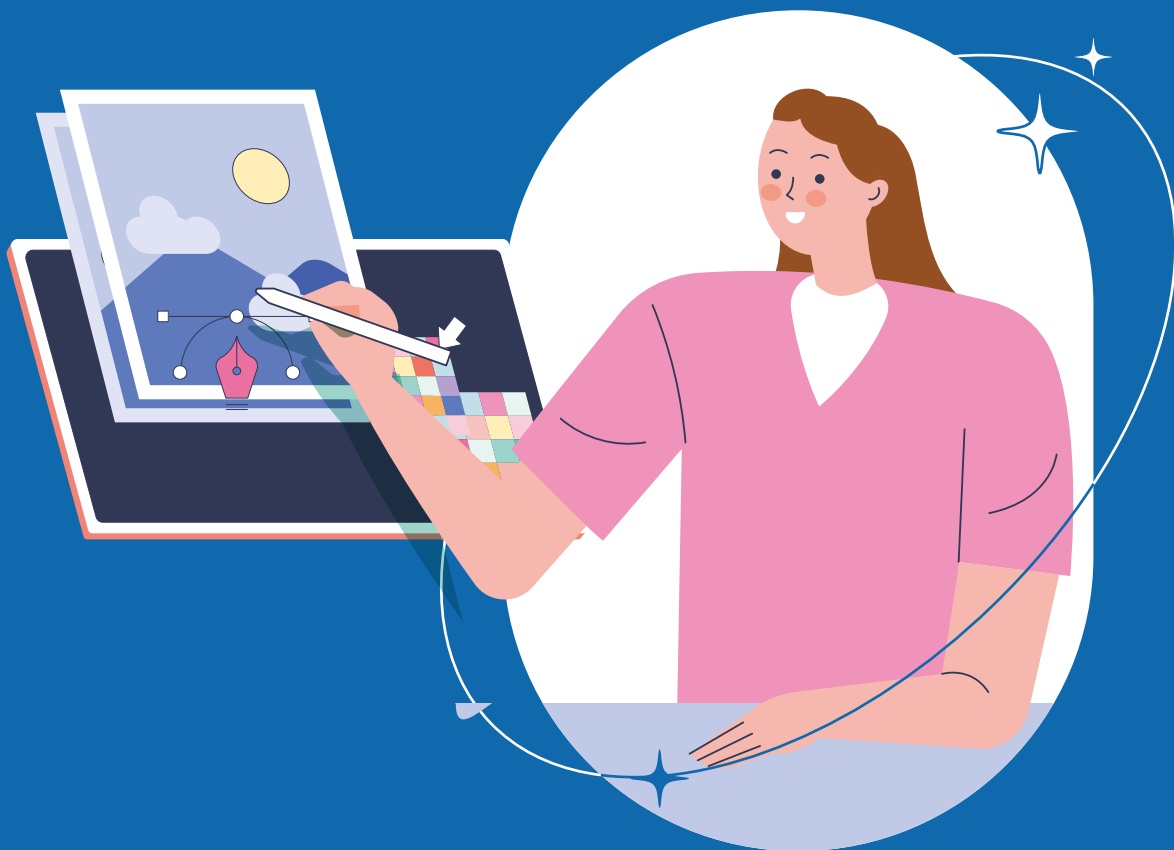


## 입선

이름 오서진

기업명 조은꿈

참여기간 2024년 4월 ~ 6월



## 01.

사업참여  
이전의 나

나는 2018년도에 4년제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하여 꽤 여러 다양한 곳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계속해왔다.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 선택들이었다.

나의 전공인 산업디자인이라는 분야가 제품, 인테리어, 주얼리, 공간 디자인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 졸업 이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는 게 사실 쉽지 않았다.

그렇게 여러 곳에서 경험을 쌓고 나니 어느 정도 내가 하고 싶고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분야에 도전하게 되어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일하게 되었다. 3년 동안 일하면서 보람도 많이 느꼈지만, 힘든 점도 느껴보고 주변 디자이너 동기들에게 듣는 에이전시와 인하우스 회사의 장단점을 보고 이후에는 인하우스 디자이너의 자리에서도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 끝에 3년 동안 고생한 회사를 마무리하며 잠깐의 휴식을 갖고 좀 더 원하는 조건의 회사를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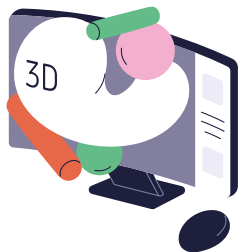
몇 개월 동안 여행도 다니고 이제까지 쌓아 온 나의 스킬과 작업물을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갔다. 그 이후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시작했다. 여러 일자리 매칭 사이트를 찾아본 결과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 어느 정도 원하는 업무이지만 거리가 멀거나 면접을 봤을 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업무도 바라는 회사도 종종 있었다. 여러 군데 중 한 회사에서 업무와 바라는 인재상을 보고 내 역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원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면접을 보게 되었고 회사의 대표님과 본부장님께서 나의 포트폴리오와 가치관에 대한 얘기를 꼼꼼히 들어 주시고 같이 일하면 좋을 것 같다 판단해주셔서, 빠르게 입사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다.

마침 내가 원하던 인하우스의 디자이너로서도 일할 수 있어서 앞으로 경험할 것들에 걱정도 많이 되었지만,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과 어떤 것들을 새로 접하게 될지 기대가 되어 설레었다.



청년인턴 지원사업처럼 이렇게 좋은 취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과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었다고도 생각이 든다.

## 02.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만나고

지난 4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청년인턴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고 알차고 보람차게 업무를 했다.

내가 일하게 된 ‘조은꿈’이라는 회사는 대기환경 측정, 필터 소재 및 제품 집진장치 및 설비를 연구하며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곳에서 나의 역할은 회사에서 필요한 시각적 자료, 3D 디자인, 프린팅 등 꽤 다양하게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대표님께서는 첫 업무로 회사소개서 작성을 부탁하셨는데, 이는 회사의 전반적인 내용과 시스템을 파악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셨다.

파워포인트로 제작하였는데, 내용의 요소로 필요한 시각적인 자료들은 평소에도 자주 애용하는 어도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나갔다. 생각보다 고민할 부분이 많았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습득할 시간이 필요하여 내가 예상한 시간보다 더 소요되었다. 하지만 시간과 노력을 들인 만큼 대표님도 유심히 보시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시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었던 것 같다.

내가 만든 회사소개서 기반으로 앞으로도 회사의 디자인 컨셉의 방향성을 잡고 나아갈 거라는 피드백을 듣게 되어 뿌듯하고 자신감이 생겼다. 그 이후에는 연구소장님께서 실험하시는 구조를 내가 할 수 있는 3D 프로그램을 통해 작동 구현과 간섭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과 이후에 스마트스토어도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어떻게 개설할지 고민하고, 그에 맞는 디자인에 대한 레이아웃과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여러 다양한 업무들과 좋은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 지난 3개월이었다.

조은꿈의 사무실은 ‘대전 일자리 경제 진흥원’에 있다. 주차 공간도 여유 있게 되어있고, 건물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도 있었다. 그리고 주변에 자연으로 둘러 쌓여 있었는데, 내가 근무할 때쯤에는 봄이어서 벚꽃이 휘날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점심을 먹고 쉬는 시간일 때는 뒤에 산책할 수 있는 길이 조성되어있어 좋았던 기억들이 많았던 것 같다. 구내식당이 있는 점도 좋았는데, 구내식당의 밥도 훌륭했지만, 직원분들과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근처에서 외식도 했는데 같이 맛집을 알아가는 시간도 소소한 행복이었다.

아쉽게도 다른 조건들과 이유로 더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인턴지원 사업을 만난 지난 3개월 동안 조금은 굳어있던 나의 스킬과 자신감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된다. 서로 다른 곳에 있는 지금까지도 조은꿈 대표님과 직원분들과 간간이 안부를 물어보며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내가 바라던 이상적인 모습이어서 나에게 있어서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좋은 디딤돌이 되었던 것 같다.

## 03.

현재의 나,  
그리고  
앞으로의 나

짧지만 3개월의 청년인턴 지원사업 기간 동안 많은 도움을 받고, 기대보다 좀 더 수월하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 여러 업무들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무엇에 더 자신이 있고 어떤 부분이 약한지 알 수 있게 되었고, 운이 좋게도 좋은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며 다른 분야에 대한 부분들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나에게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다른 곳으로 취업을 알아보며 여러 곳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지원사업 3개월 동안 나름대로 트레이닝이 된 모습이 면접을 볼 때 장점으로 승화된 것만 같았다. 면접을 보면서 조금은 떨렸지만, 자신감이 부족했던 예전의 모습과는 다른 나를 찾을 수 있었다. 결과는 지원한 세 군데에서 감사하게도 모두 좋게 봐주셔서 불게 되었다. 결론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장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 포지션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이번 인턴 기간을 겪으면서 나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꽤 오래 다양한 곳에서 일하게 된 나는 현재 상황이 감회가 새로웠고,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자신감이 생기기까지 쉽지 않았던 나였는데, 실수했던 경험, 오래 걸리지만 끝까지 스스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해봤던 경험 등 힘들거나 보람을 느꼈던 다양한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 느낀 감정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졸업을 하고 내 분야의 전문적인 일을 하게 되면서 좋은 분들의 가르침과 이번 청년인턴 지원사업처럼 이렇게 좋은 취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과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었다고도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새로운 일이든 전에 해왔던 일이든,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않겠지만, 할 수 있을게 더 많아질 나, 아는 것이 많아져서 뭐든 할 수 있는 내가 기대되고, 다시 또 몇 년 후 시간이 지나 되돌아봤을 때 후회 되지 않는 선택과 끈기를 가진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통해 크게 얻은 부분은 자신감과 용기여서 취업에 대해 고민이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져 좋은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용기를 얻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로 나갈 수 있게 해준 '청년인턴'

## 입선

이름 이우철

기업명 대승바이오팜

참여기간 2024년 8월 ~ 11월



## 01.

사업참여  
이전의 나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사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생물학과 환경 생태학을 전공하며 많은 선배들께 직업과 진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감각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승바이오팜의 청년인턴을 신청하게 되었고, 이는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단순한 실험 기술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농작물 재배와 농약 및 약품 처리를 포함한 실험과 연구의 전반적인 과정을 체계적으로 경험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농약 잔류 검사는 식품안전과 환경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로 이를 직접 체험하고 느껴보고 싶어서 청년인턴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제 경력과 전문성을 확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으며, 이론적 지식과 현장의 경험을 통합하며 더 많이 배워나가고, 또한 제가 사회에서의 스스로의 가능성을 알아가는데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02.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만나고

청년인턴을 시작한 뒤, 직원분들께 많은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턴생으로서 배우는 것에 있어 친절히, 또 자세히 업무에 관하여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인턴십 과정의 첫 주는 새로운 환경과 장비, 업무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구실에는 다양한 고급 장비들이 있었고, 이를 직접 사용해보며 학교에서 이론으로만 배웠던 부분을 몸소 익히는데 도움이 되고 열정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장비를 다루는 기본적인 절차부터 시작하여 실험의 과정과, 시료의 준비, 분석 전 전처리과정 및 결과 도출의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세부 기술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특히, 농약 잔류검사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재배 및 약품 처리가 실험실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기에, 해당 농작물을 직접 기르는 농장을 방문하며 농작물의 상태를 관찰하고, 약품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팀원분들과 협력하며 실험, 업무 부분 이외에도 사회생활을 할 때 조직내에서의 협동과 커뮤니케이션 등 필수적인 부분들도 배우고 익혀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동료들과 원활히 소통하며 팀의 목표에 맞춰 협력할 수 있도록 항상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마주한 어려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함께 논의하며 해결책을 만들어나갔던 경험은 저에게 큰 배움과 보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실험 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전처리 및 잔류검사를 하는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실험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이러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잘못되면 실험 전체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했으며, 물론 실수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분들이 친절히 알려주시고, 다독여 주셨기에 더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어서 늘 감사함을 느낍니다. 비록 3개월이라는 짧은시간에 모든 업무를 배워서 나갈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라는 시간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 03.

#### 현재의 나, 그리고 앞으로의 나

학교에서는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실험과 연구를 진행하였다면, 대승바이오팜에서 청년인턴을 하면서 단순히 실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험과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체감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의 경험은 제게 이론과 실무의 차이점과, 그 차이점을 이해하고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가르쳐주었고, 스스로가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에서 스스로 할 수 있다, 배워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험과, 연구, 그리고 사회생활의 경험 자체도 참여의 성과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사회로의 첫 발을 내딛는 자신감을 준 것에서 가장 큰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험을 토대로 전문성을 키우며, 제가 속한 조직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실험과, 연구, 그리고 사회생활의 경험 자체도  
참여의 성과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사회로의 첫 발을 내딛는 자신감을 준 것에서  
가장 큰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 내일의 나를 만나다

2024 대전광역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체험수기집

---

**발행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장동)

**발행일** 2025년 1월

**전화번호** 042-380-3000

**홈페이지** [www.djbea.or.kr](http://www.djbea.or.kr)

**디자인** DESIGN OHO(디자인 오호)





대전광역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